

고성 문암리유적(高城 文岩里遺蹟)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 평저토기문화의 전개

김 은 영
(동경대학대학원 고고학연구실)

- I. 머리말
- II. 편년의 재검토와 문제 제기
- III. 두만강 하류지역과의 관계
 1. 토기
 2. 석기
 3. 결상이식(缺狀耳飾)
- IV. 남부지역과의 관계
 1. 토기와 토제품
 2. 석기
 3. 석제 장신구
- V. 맺음말

국문 초록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한반도 중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평저토기는 고성 문암리유적의 발굴을 통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변천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압날문토기 자체의 변천과 용기문토기의 등장 및 양자의 관계 등에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고성 문암리유적의 토기를 비롯 석기, 토제품, 장신구 등 다양한 물질문화에는 두만강 하류 지역과 남부지역과의 영향관계가 잘 반영되어 있어, 양지역과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중동부지역과 두만강 하류지역간의 영향관계보다 남부지역과 중동부지역간의 영향이 보다 광범위한 기층에, 그리고 공유의 차원이 제작기법과 같은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알았다. 이 사실은, 남부지역에 일시적으로 중동부지역 사람의 이동 내지는 분포범위의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 중동부지역 평저토기, 보이스만문화, 남부지역 용기문토기, 기종 조성(器種組成), 영향관계

I. 머리말

한반도의 신석기시대에는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성립한 첨저줄문토기군(尖底櫛文土器群)과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 평저토기군(平底土器群)이 존재했다. 첨저줄문토기보다 한발 앞서 동·남부지역에 성립한 평저토기군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변천을 보이는 첨저줄문토기에 비해 개방적이고 현저하게¹⁾ 변천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며, 그러한 특색의 영향 때문인지 첨저줄문토기가 한반도 전체에 확산된 이후에도 남부지역의 토기변화는 중서부지역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평저토기 자체의 변천과 그에 수반한 다양한 문화요소의 변용이다. 그것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이, 고성 문암리유적(高城文岩里遺蹟)이다. 고성 문암리유적은 후술하듯이, 평저토기 편년 연구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출토 유물에는 두만강 하류지역, 그리고 남부지역과의 영향관계가 잘 반영되어 있다. 우선, 고성 문암리유적의 토기를 통해 평저토기 편년의 틀을 재정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편년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가겠다. 불완전하나마 짜여진 토기 편년을 바탕으로 석기·장신구·토제품 등의 움직임에 비교 검토함으로써 넓은 범위에 걸친 평저토기의 전개과정 속에서 두만강 하류지역과 남부지역²⁾과의 지역간 영향관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지역간의 영향관계 연구에 있어서 몇가지 문화요소를 근거로 역사적인 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막연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암리유적에서 두만강 하류지역, 남부지역과 관련된 문화요소를 각각 추출하고, 두만강 하류지역과 남부지역에서도 각각 문암리유적과 관련된 문화요소를 추출한 후 두만강 하류지역과 문암리유적 사이의 영향관계의 양상과, 남부지역과 문암리유적 사이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글의 서술과정에서 고성 문암리유적에서 얻어진 방사성탄소연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 원래 이 글은 고성 문암리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결과(6,595±40BP, <그림 1-22>의 탄화물을 측정)를 공표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으로, 그 결과를 고고학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연대로써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방사성탄소연대의 결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책의 부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1) 현저하게 변화하였다고 해서 앞단계와 완전히 단절된 변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단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토기가 성립되어도 앞단계 토기와는 계승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계승관계를 통해 이 지역의 전통이 계속 전해졌을 것이다.
- 2) 이 글에서 거리상 멀리 떨어진 두만강 하류지역, 남부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중동부지역과 그 지역들의 사이에 유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후술에서, 문암리유적 출토 토기와 보이스만유적의 토기를 비교하지만, 그것이 보이스만유적에서 반입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며, 울산 세죽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들이 문암리나 오산리유적에서 유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미리 언급해 두고자 한다. 그 중간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에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II. 편년의 재검토와 문제 제기

양양 오산리유적(襄陽鰲山里遺蹟) 발굴로부터 시작한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의 편년연구는 20여년을 거치는 동안 ‘오산리식토기’라는 개념을 형성하기에 이르렀으나³⁾, ‘오산리식토기’ 자체의 변천과, ‘오산리식토기’와 용기문토기의 관계 등에 관해 여러가지 이견을 남기고 있었다⁴⁾. 그러한 중에 고성 문암리유적이 발굴되어 편년 연구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암리유적에서는 편년의 단위로써 신뢰할 만한 2개의 일괄세트가 검출되었다. 02-7호 주거지를 포함한 Ⅸ·Ⅹ층의 무문양토기 조성<그림 1-21~30>과 토기밀집유구의 압날문, 용기문토기 조성<그림 1-1~8>이 그것이다.

보고서(國立文化財研究所, 2004)에서도 Ⅸ·Ⅹ층을 문암리1기로 나누고 무문양토기 단계를 설정하였으며, 필자도 무문양토기의 비율이 높고 (파수부)옹형의 주칠토기가 많아 그 윗층의 토기와는 확실히 구분된다는 점을 서술한 바 있다. 그러나, 문암리유적은 무문양토기가 문양토기의 약2배 정도로 원래 무문양토기의 비중이 크며, 하층으로 갈수록 발굴면적이 좁아져서 우연히 문양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문양토기 조성 자체의 실재성(實在性)이 앞으로 발굴자료의 증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었다(金恩鏞 2006a).

그런데 최근 도로확장공사에 수반하여 조사된 양양 오산리Ⅱ유적의 발굴 결과(高東淳 2007)에 의하면, 최하층인 3-15층이 90% 이상의 무문양토기와 소량의 주칠압날문토기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문암리유적 Ⅸ·Ⅹ층의 무문양토기 조성과의 기형(器形)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무문양토기의 비율이 높은 점과 주칠토기의 존재 등으로 보아 같은 토기군일 가능성이 크며, 둘다 각 유적의 최하층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가장 이른 시기의 하나의 편년 단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문암리유적 Ⅸ·Ⅹ층 토기 조성의 검출은, 기존 오산리식토기의 편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의 해결에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된다. 즉, 반죽관문(半竹管文) 토기 조성⁵⁾과

3) 오산리유적의 평저토기 중에서 용기문토기와 구분하는 역할을 갖는 ‘오산리토기’ 또는 ‘오산리식토기’라고 부르는 개념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토기가 들어가는지, 연구자마다 그 이해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오산리식토기’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번거롭지만 ○○호 주거지 토기 조성, ○○층 토기 조성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유구나 층위에서 나온 양호한 일괄품이 없을 경우는 문양 또는 기형의 특징으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4)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이 글에서 연구사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은 양해를 구하며,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연구사는 줄고(金恩鏞 2006a)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5) 반죽관문을 시문하고 구연부 내면에 뚜렷한 능선(稜線)을 갖는 발·옹형토기와 장동(長胴)의 옹형토기, 반죽관문+종단선문(縱短線文)의 파수부옹형토기의 조성을 일컫는다. 오산리유적 7호 주거지에서는 반죽관문 시문의 발형토기만이 출토되어 전체 기종조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성 문암리유적에서도 이 반죽관문 토기 조성의 시기가 존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양호한 일괄 출토품이 없기 때문에 반죽관문 토기 조성이라 부르기로 한다.

오산리유적 V-①층의 토기 조성<그림 2-12~22>⁶⁾과의 선후관계 문제이다. 문암리유적 Ⅸ·Ⅹ층 토기의 기종 조성과 기형은 반죽관문 토기 조성(형식학적으로⁷⁾, 그리고 층위적으로 보다 가깝다는 점에서, 오산리유적의 층서대로 반죽관문 토기 조성이 V-①층의 토기 조성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유추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편년상의 성과는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의 공반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토기밀집 유구<보고서 사진 38>의 확인이었다. 층위적으로 반죽관문 토기 조성보다 위에서 나온 점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양양 오산리유적에서도 이미 2호 주거지와 Ⅲ층에서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가 공반하고 있었으나 용기문토기→‘오산리식토기’로의 변천을 주장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바 있다.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의 공반과 층위는 새로 발굴된 오산리 Ⅱ유적 1호 주거지(高東淳 2007)에서 다시 입증되었다.

결국 고성 문암리유적의 발굴 결과는, 중동부지역 평저토기 편년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오산리식토기’ 편년의 계기가 되었던 양양 오산리유적의 층위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이 다시 양양 오산리 Ⅱ유적에 의해 더욱 다져졌다고 할 수 있다.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오산리유적의 층위관계를 통해 중동부지역의 압날문 평저토기는, 대체로 문암리 Ⅸ·Ⅹ층의 무문양토기 조성(소량의 압날문토기 포함)→반죽관문 토기 조성→오산리 V-①층의 점열문·중단선문(縱短線文) 토기 조성→문암리 토기밀집유구의, 용기문토기와 공반하는 압날문토기 조성→오산리 Ⅲ층의, 용기문토기 및 무문양토기와 공반하는 압날문토기로 변천해감을 알 수 있었다.

압날문 평저토기의 대체적인 변천은 알 수 있었지만, 편년이란 것이 한번에 완결될 작업이 아니며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다. 향후 연구와 발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써 몇가지 사항을 서술해 두고자 한다.

먼저, 평저토기의 변천과정 중 용기문토기가 어느 시점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와도 관련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필자는 전고(金恩鏞 2006a)에서는 문암리유적의 02-1호 주거지의 공반관계와 울산 세죽유적의 출토양상을 중시하여, 반죽관문 토기 조성(오산리 V-①층의 점열문·중단선문 토기 조성) 사이의 과도기부터 용기문토기가 출현한다고 하였다⁸⁾. 그러나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암리유적의

6) 오산리유적 V-①층의, 점열문·중단선문을 시분하고 구연부 능선이 약해지거나 없어진 발·(파수부)옹형토기와 무문양의 파수부옹형토기로 이루어진 조성을 말한다.

7) 장동의 옹형토기(그림 1-28·29)라는 기종의 유부, 반죽관문을 시분한 파수부옹형토기에 주철을 한 절충토기(金恩鏞 2006a의 도 6-21)의 존재등을 들 수 있겠다.

8) 전고(金恩鏞 2006a)에서 반죽관문 시분 토기 시기의 용기문토기 공반 여부에 대해서 본문에는 확실히 없다고 밝히면서도 편년표에 도면을 넣은 것은 오류였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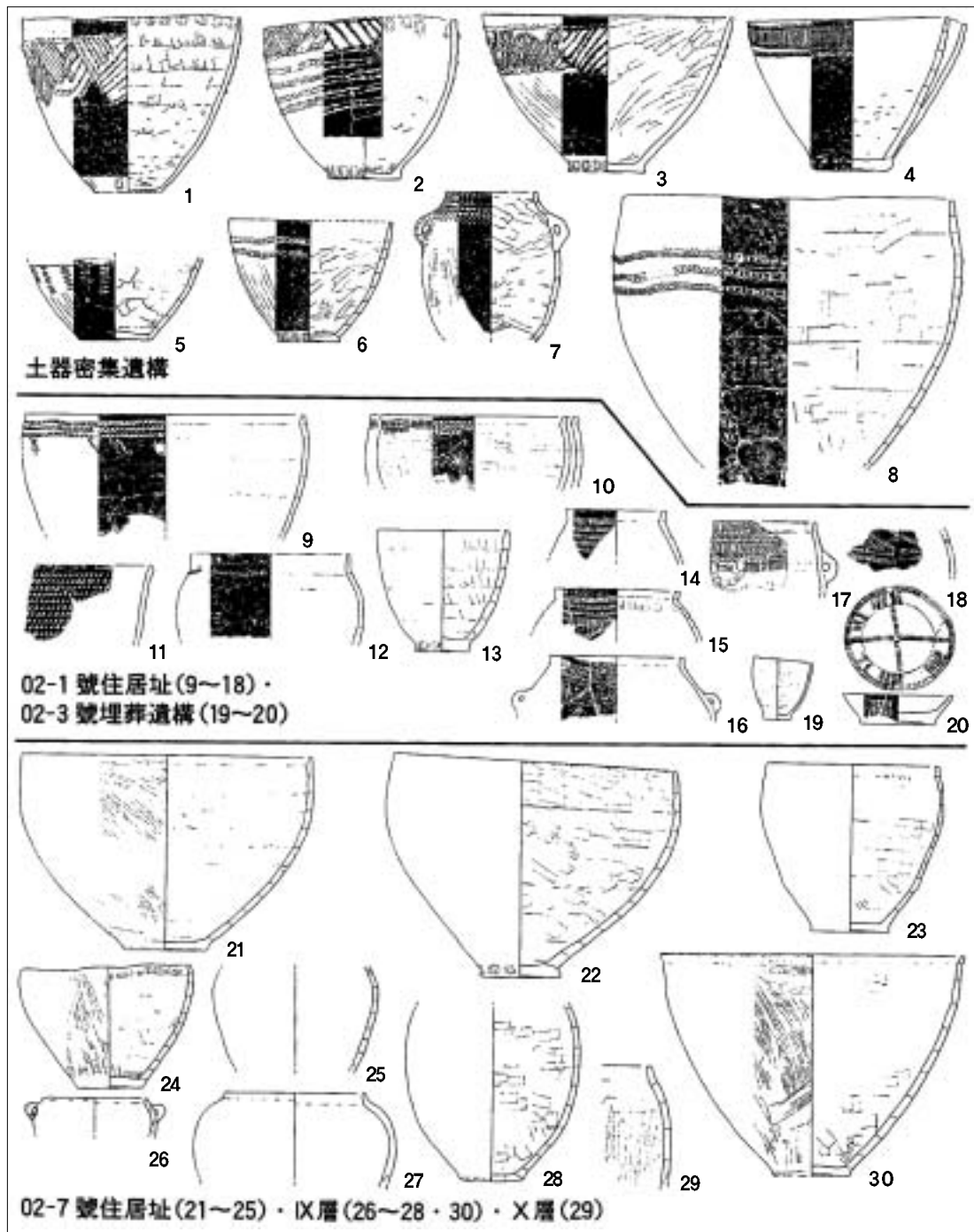


그림 1.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토기(1/6)⁹⁾

9) 그림 출처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金恩榮 2006a에서 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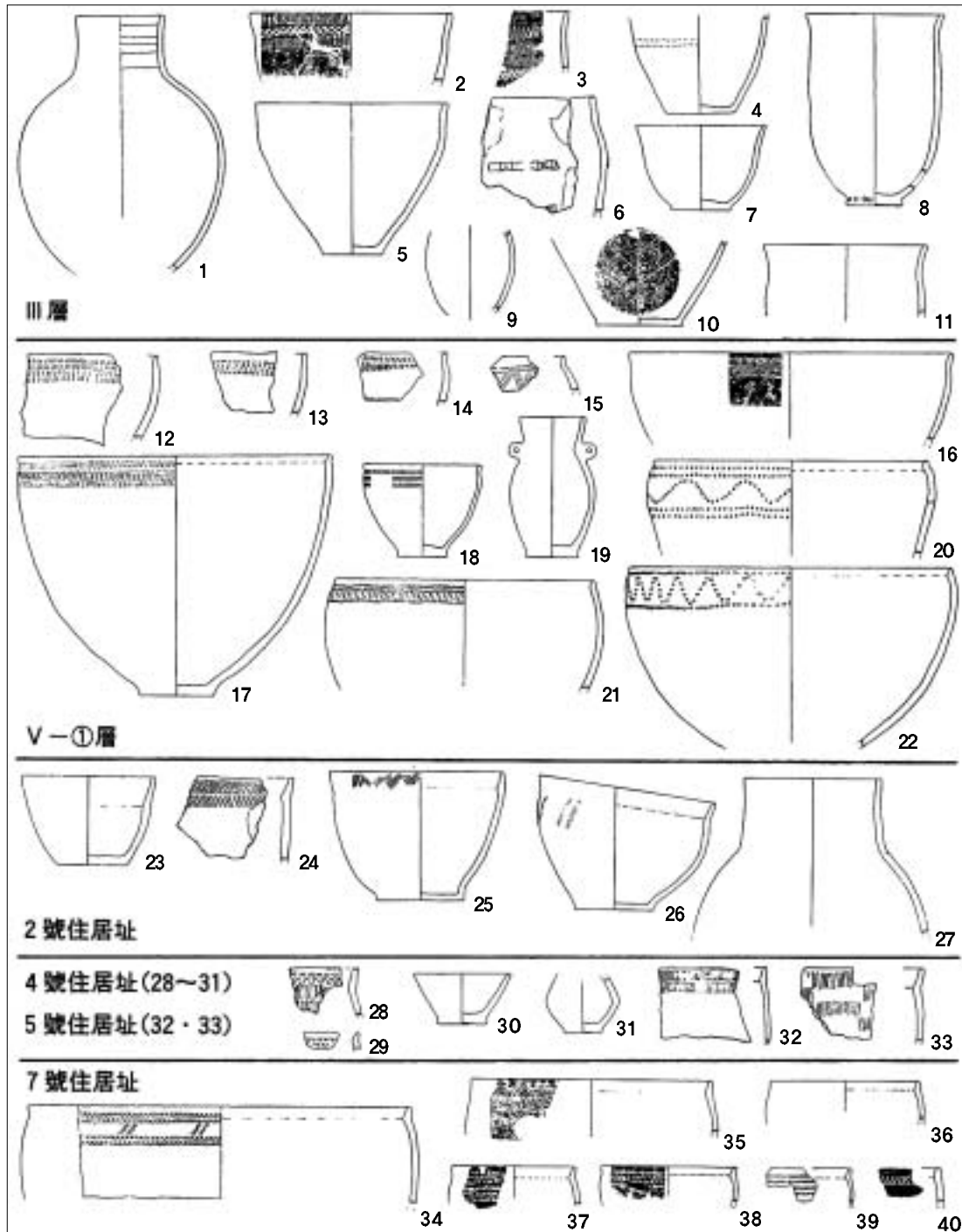


그림 2 양양 오산리유적 출토 토기(1/6)¹⁰⁾

10) 그림 출처 : 서울大學校博物館, 1984(金恩榮 2006a에서 전재)

02-1호 주거지에서 공반하는, 짧은 직립구연의 옹형토기에 두립문이나 용기문을 시문한 토기<그림 1-12>는, 두립문 또는 용기문이 시문되었다는 점에서만 일치할 뿐, 압날문토기와 안정적으로 공반하는 용기문토기와는 기종 자체가 다르다.

한편, 울산 세죽유적에서는 오산리유적 V-①층의 점열문·종단선문 토기 조성<그림 8-11~20>과 중동부지역 계통의 용기문 발형토기<그림 8-21~26>, 용기문·두립문의 짧은 직립구연 옹형토기<그림 8-8·9>가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그림 8-27~34>와 같이 출토되었다. 필자는 결합식조침 및 불고기 척추뼈 등의 출토양상을 근거로 울산 세죽유적의 층위가 비교적 안정되었으며, 토기의 형식학적 분석을 통해 전체가 공존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필자의 울산 세죽유적 층위에 대한 해석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울산 세죽유적에서 공반하는 오산리유적 V-①층의 토기 조성과 중동부지역 계통의 용기문 발형토기, 용기문·두립문의 짧은 직립구연 옹형토기의 세 토기군이 중동부지역에서는 아직 공반하는 예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울산 세죽유적이 시기차를 갖는 것일까?

그러나 한가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은 오산리유적 2호 주거지<그림 2-23~27>에서와 같이 구연부 내면에 능선을 갖는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가 공반하면서 용기문토기에도 능선이 형성되는 등 형식학적 절충현상이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구연부 내면에 능선을 갖는 압날문토기의 퇴화된 형식이 압날문 평저토기의 변천에서 차지하는 시간적 범위와도 관련된 문제이지만, 용기문토기와 공존 내지 공반한 압날문토기에는 직립구연 외에 능선을 갖는 토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된다.

아직 발굴된 유적수가 적어서 현 시점에서는 결정적인 근거를 찾아내기 힘들지만, 용기문토기와 <그림 3>과 같은 새로운 압날문토기가 안정적으로 공반하기 이전에도 둘이 공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향후 자료의 증가를 지켜보았으면 한다. 그와 함께, 용기문토기와 압날문토기의 기종, 기형, 상호 영향관계, 출토 양상의 검토를 통해 계통이 다른 토기군이 공존 내지 공반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밝혀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써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오산리유적 사이의 차이를 지역차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시기로 해석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양 유적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공반관계라고 생각되는 기종 조성을 제시한 것이 <그림 1·2>이다¹¹⁾. 양 유적을 비교해 보면, 오산리의 Ⅲ층, V-①층, 2호 주거지의 조성이 문암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문암리의 토기밀집유구와 02-1호 주거지·02-3호 매장유구의 세트도 오산리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조성 안에 포함된 토기 하나하나를 비교하면 유사한 것이 없지도 않지만, 편년에서 중시되어야 할 기종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편년의 방법으로는 기종 조성의 차이를 시기로 해석하여 모두를 선후관계로 배열하는 것과, 조성의 차이를 동시기에 존재한 지역차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필

11) 발굴된 층위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순서 자체가 필자의 편년관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는 전고(金恩瑩 2006a)에서 각각의 조성 내에서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형식학적 속성을 중시하여 병행관계를 설정한 바 있다.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의 편년이 가능한 유적이 아직 2개소에 불과하여 지역성의 존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나, 양 유적의 전체적인 양상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문암리유적이나 오산리유적 모두 자체의 토기 변천만으로는 형식학적으로 연속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간차로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는 서로 다른 계통의 토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천해 가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간차 또는 지역차로 단순히 결론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과도 관련된 마지막 문제점은, 중동부지역 평저토기 변천의 획기와 관련된 것이다. 양양 오산리유적 토기만으로 편년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용기문토기를 제외한 모든 압날문토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것이 대체로 ‘오산리(식)토기’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고성 문암리유적의 발굴과 양양 오산리유적의 재발굴로 증가된 자료를 포함시켜 보는 한, 이제 ‘오산리(식)토기’라는 개념으로 평저토기의 변천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동북아시아라는 틀 속에서 한반도의 신석기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중국·러시아·북한의 고고학적 편년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를 한반도 신석기시대에도 설정하고자 시도한 바 있다(金恩瑩 2006b). 광역편년의 기본 작업인 지역간의 병행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편년의 단위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도 별 무리없이 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의 변화양상이 점차 구체화됨에 따라, 실제 문화를 설정하는 작업이 간단치 않아 주저하게 되었다. 단순히 정리하자면 평저토기의 연속성을 중시하여 크게 하나의 문화를 설정할 것인가, 차이점을 중시하여 서로 다른 복수의 문화를 설정할 것인가¹²⁾ 하는 것이다. 굳이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변천을 구명하고자 하는 연구자라면 누구라도 봉착하게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오산리(식)토기’라는 개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연구자가 있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이번에 방사성탄소연대가 측정된 고성 문암리유적의 Ⅸ·Ⅹ층 토기 조성의 위치지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문암리유적의 Ⅸ·Ⅹ층 토기 조성은, 차이점이라는 면에서 보면 문양의 존부¹³⁾ 내지는 주칠토기의 비율 등의 특징이 기존의 ‘오산리식 토기’와 구별되지만, 공통점이라는 면에서 보면 기형과 토기제작기법(∩자상의 점토띠 접합흔과 정면기법 등)이 ‘오산리식토기’와 일치한다. 때문에 이 토기군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문화를 설정할

12) 현 시점에서는 고성 문암리유적의 Ⅸ·Ⅹ층과 같이 부분양토기가 중심인 토기 조성, 용기문토기와 공반하지 않는 압날문토기 조성, 안정적으로 공반하는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의 조성으로 대표되는 세 개의 문화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13) 새로 발굴된 양양 오산리Ⅱ유적의 최하층 토기 조성이 문암리 Ⅸ·Ⅹ층과 같은 토기 조성이라 하더라도 문양의 차이는 인정된다.

것인지, 크게 오산리문화를 설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이른 단계로 위치시킬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남부지역에서 새로이 조사된 창녕 비봉리와 여천 안도 등에서 용기문토기에 앞서는 새로운 토기군이 출토되어 그것이 문암리유적의 IX·X층 토기 조성과 병행할 가능성이 엿보이므로, 남부지역과의 병행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문암리유적의 IX·X층 토기 조성도 새로운 문화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단편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뿐, 창녕 비봉리와 여천 안도, 양양 오산리Ⅱ유적의 보고서가 간행된 후 다시 검토해 볼 과제이다.

이상에서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대체적인 변천과정과 그와 관련된 편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아직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편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절에서는 평저토기의 전개과정에서 엿보이는 두만강 하류지역 및 남부지역과의 영향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전고에서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문화가 두만강 하류지역의 보이스만문화, 한반도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 문화와 일정한 영향관계에 있었음을 토기자료를 근거로 밝힌 바 있다(金恩瑩 2006a). 여기서는 토기 외에도 석기 조성·장신구·토제품 등의 물질자료도 포함하여 검토함으로써 문암리유적, 나아가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문화와 이들 지역과의 비교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한 위에, 그 영향관계의 실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구명해 가겠다.

Ⅲ. 두만강 하류지역과의 관계

1. 토기

두만강 하류지역의 보이스만문화와 문암리유적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토기의 기종 조성, 토기 자체, 문양이나 기형의 일부요소를 각각 추출해 보았다. 먼저, 토기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발형토기와 발형에 가까운 옹형토기를 주체로 하고 극소수의 천발(淺鉢) 내지는 접시형토기로 이루어진 보이스만문화의 토기 조성 and 발형토기, (파수부)옹형토기, 호형토기로 이루어진 문암리유적의 토기 조성 사이에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토기 자체, 즉 반입품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암리유적에서 나온 보이스만문화 토기를 들 수 있겠다. 이 토기에 대해서는 전고(金恩瑩 2006a)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보이스만1유적의 사진 자료를 참고로 제시하여 비교해 보았다. 보이스만1유적 출토 토기의 문양은 판상(版狀)의 시문구를 아래쪽에 힘을 주어 압인하여 시문한 것과 2, 3치구를 압날하여 시문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사진 1-5·6). 토기의 색조는 흑갈색이나 흑회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며,

구연부가 흑갈색, 동체부가 적갈색을 띠도록 소성한 것<사진 1-6>이 존재한다. 문암리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사진 1-1~4>는 구연부 단면 형태, 판상 시문구의 아래쪽에 힘을 주어 압인한 시문 기법, 구연부는 흑갈색이고 동체부로 내려올수록 적갈색을 띠도록 소성한 점 등이 보이스만문화의 토기 자체의 반입품일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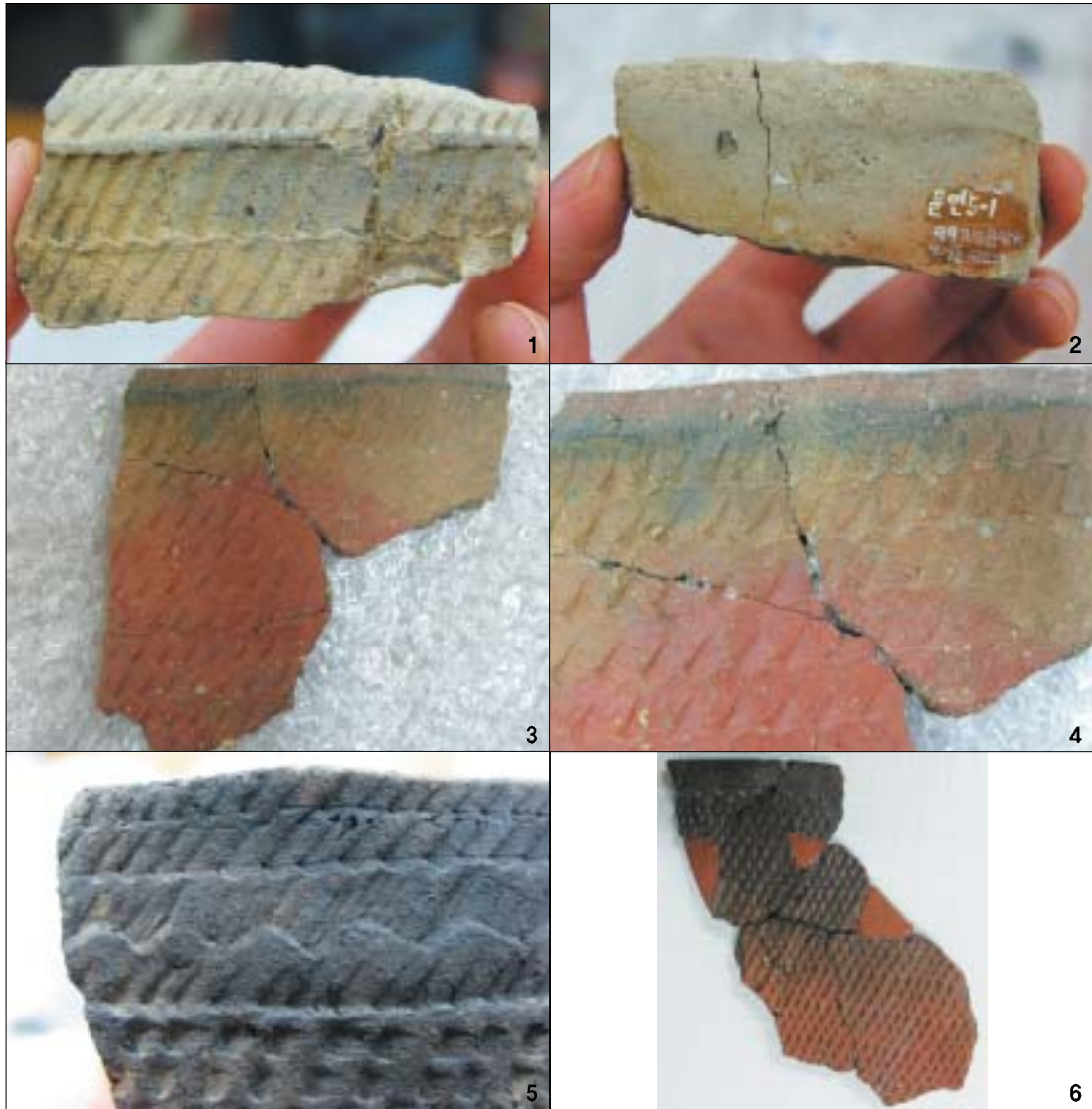


사진 1.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보이스만문화 토기(1~4)와 보이스만유적 출토 토기(5·6)¹⁵⁾

14) 이 유물을 직접 실견한 伊藤真二는 태토, 시문수법 등에서 러시아지역 자료와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반입품으로 판단하고 있다(伊藤真二, 2006). 이 외에도 보고서의 圖面41-⑦⑧⑨도 기형과 문양시문기법으로 보아 반입품일 가능성이 있다.

15) 사진 출전: 필자 촬영

마지막으로, 기형이나 문양요소를 공유하는 토기, 다시 말해 흔히 모방품으로 일컬어지는 토기를 추출해 보았다. 문암리유적에서는 <그림 3-1~14>와 같은 토기를 추출할 수 있었다. 기형이나 문양 요소, 문양시문기법, 문양시문부위 등에서 보이스만문화의 영향을 짐작케 하는 일군의 토기다. 보고서에서도 다치구(多齒具)를 사용하여 시문한 토기를 교류관계를 통한 시문방법의 차용으로 추정하였듯이(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다치구의 등장은 큰 변화라 생각되며, 구연부 내면에 능선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게 한 기형상의 변화와도 연동하여 앞 단계의 압날문토기와는 일확을 그을 수 있겠다. 그러나 토기의 태토나 성형기법, 기면정면 등에 있어서는, 구연 내면에 능선을 가진 압날문토기의 특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반입토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재지의 토기제작 전통에 타지역의 영향이 더해진 토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이스만문화 토기와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구순각목<그림 3-1·2와 18~20>, 접시형 토기<그림 3-3·4와 16·17>, 저부 근처까지 시문한 것<그림 3-6과 3-21·22>, 다치구<그림 3-4·6·7과 15·18> 등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그림 3-5, 8, 9, 11, 12, 13, 14>와 같이 세밀한 다치구의 대상(帶狀) 문양대를 갖는 것은 보이스만문화의 토기에도 보이지만<그림 7-28>, 주체를 이루는 문양요소는 아니다. <그림 7-28>의 토기에 대하여, 모레바는 보이스만문화 토기와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는데(Морева·Попов, 2003), 보이스만문화의 북쪽에 연결하여 분포하고 있는 루드나야문화 토기의 영향을 의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상으로 고성 문암리유적의 토기변천에 있어서 두만강 하류지역의 보이스만문화 토기의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영향은 토기 자체의 반입과 일부 요소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나타났다. 그런데 보이스만문화 토기의 반입과 새로운 다치구계 압날문토기의 등장은 서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일까. 보이스만문화의 토기가 출토된 98-3호 야외노지, 02-1호 주거지에서는 다치구계 압날문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문암리유적의 층위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보이스만문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문암리에 반입된 것과 유사한 토기는 현재 러시아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레바의 편년(Морева, 2003)의 2단계에 속한다. 문암리의 다치구계 압날문 토기와 공통요소를 갖는 <그림 3-15~22>의 토기들은 대체로 1~3단계로 편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짧은 시기의 특징적인 조합이라기 보다 제법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온 보편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측의 편년을 근거로 하더라도, 고성 문암리유적의 토기변천에 있어서 두만강 하류지역의 보이스만문화 토기의 영향이 동일한 시기에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반도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두만강 하류지역,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지역은 각 지역에서의 자체적인 토기 변천에 관한 연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조정의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적어도 신석기시대 전반기에 이들 지역간에 고고학적 문화요소의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만큼 상대지역과의 교차편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양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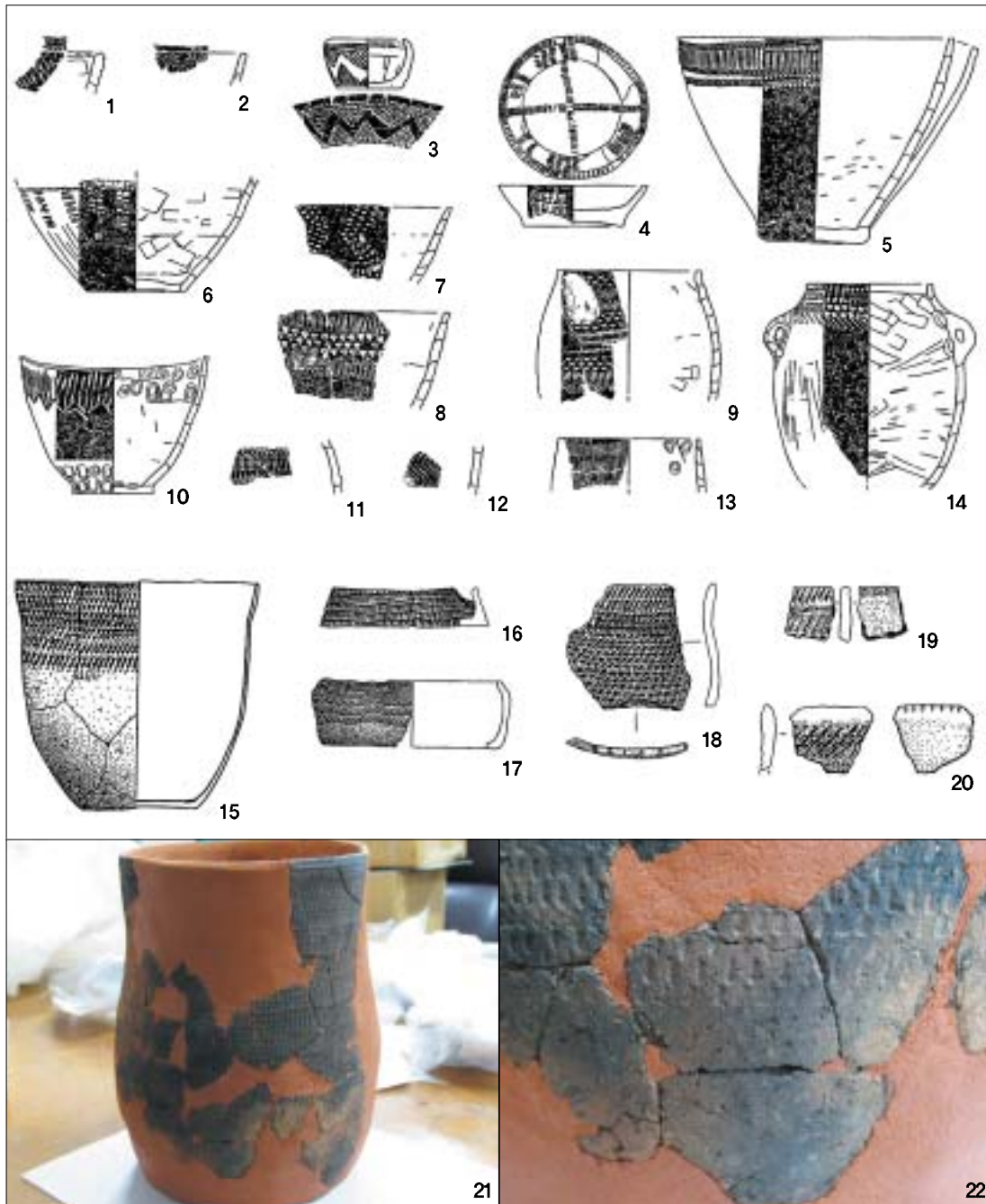


그림 3.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압날문토기군과 보이스만문화의 토기(1~17:1/6, 18~20:1/3)¹⁶⁾

1~14 : 고성 문암리, 15~17 : 보이스만2, 18~22 : 보이스만1

16) 그림 출전 1~14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15·16 : Попов·Чикишева·Шпакова 1997, 17 : Морева·Попов 2003, 18~20 : Востречоф 1998, 21·22 : 필자 촬영

연구자들에 의해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

한편, 보이스만문화2단계에서는 $6,215 \pm 130BP$ (Морева, О.Л. 2003)의 탄소연대가 나와 있다. 이는 보이스만2유적의 탄소연대로, 층서(層序)와 탄소연대가 잘 부합하여 러시아 학계에서도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암리유적의 연대측정 대상 토기가 출토된 02-7호 주거지와 보이스만 문화 토기가 나온 98-3호 야외노지, 02-1호 주거지의 층위관계는, 02-7호 주거지가 하층에 해당된다. 토기의 출토양상과 측정된 탄소연대가 모순되지 않으므로, 문암리유적과 보이스만문화와의 비교에서는 문암리유적 탄소연대 결과가 받아들일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석기

다음으로는 석기 조성과 형태 비교라는 방법으로 문암리유적과 보이스만문화와의 관련성을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보이스만문화의 석기는 석촉(石鏃), 첨두기(尖頭器), 석착(石鑿), 석부(石斧), 엔드스크레이퍼(end scraper), 석추(石錐), 지석(砥石), 어망추(漁網錘) 등이 조성을 이루고 있다 <그림 4>. 그 외에 자갈들로 된 갈돌이 포함된다¹⁷⁾(Popov · Kononenko 1995). 사용된 석기재료는 실리카(규토질)의 편암, 응회암, 플린트, 벽옥, 옥수, 그리고 드물게 흑요석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Zhushchikhovskaya 2006). 보이스만문화의 석기조성은 루드나야문화의 초르타브 바로타유적 석기조성(Андреева 1991)과 유사하여 지리적 인접성에 기인한 두 문화간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루드나야문화에 보이지 않는, <그림 4-1>과 같이 극도로 세장하게 만든 석촉과 어망추가 보이스만문화에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보이스만문화의 석기조성에 문암리유적의 석기 조성<그림 5·6>을 비추어 보면, 마제석촉·석착·석부·엔드스크레이퍼·어망추 등의 기종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다.

<그림 6-8·9>와 같은 석착과 석부는 평면형태와 단면형태 등에서도 유사성이 엿보이며, 용기문 토기로 대표되는 남부지역의 유적들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인부만 마연한 편평한 석부<그림 10-13·16>와 비교해 보면, 그 유사성이 더욱 강조되어 보인다. <그림 6-15> 같은 엔드스크레이퍼도 루드나야와 보이스만문화에 보편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한반도에서는 문암리유적에서 1점 보일 뿐, 그 외의 유적에서는 아직 출토 예가 없다.

차이점으로는, 보이스만문화의 만곡기부유엽형(灣曲基部柳葉形) 타제석촉<그림 4-5, 6>, 타제 첨두기류<그림 4-7, 11~13> 등이 문암리유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문암리유적에서는 기부가 \wedge 형으로 만입한 타제석촉<그림 6-6·7>이 사용되었으며, 결합식작살<그림 6-17>.

17) 보이스만2유적에서는 '강판'이 출토되었다고 되어 있다(데.엘.브로단스키 1996). 아마도 갈판의 역할을 한 석기를 일컫는 것 같지만, 도면이 제시되지 않아 실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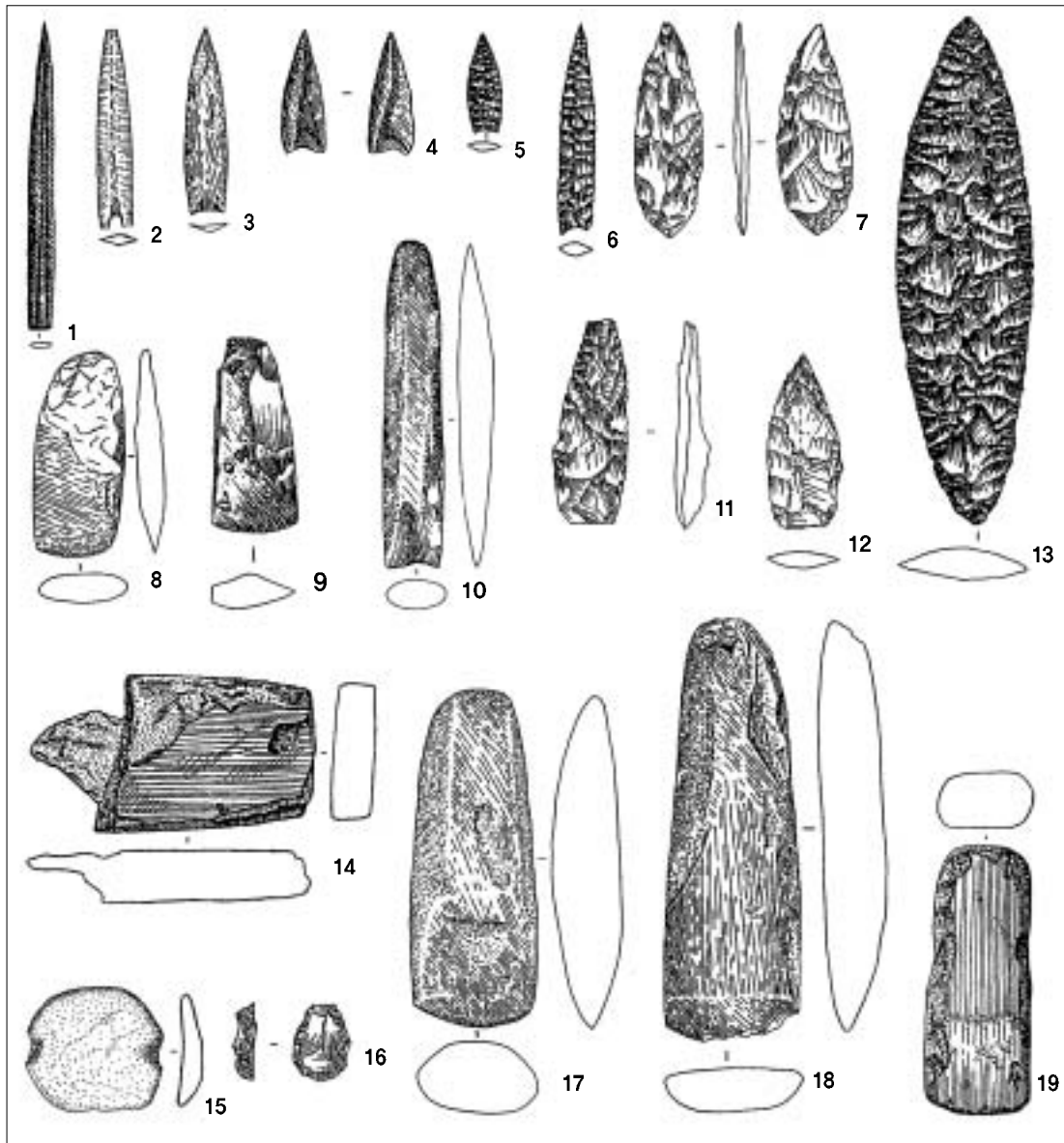


그림 4. 보이스만문화의 석기조성(1/3)¹⁸⁾

추형석기(錘形石器<그림 6-14>) 등이 조성에 추가되어 있다. 창(spearhead)으로 보고된 타제 첨두기류는 마제석창<그림 6-11, 12>에 의해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중, 세장한 형태의 석촉과 어망추는 루드냐야문화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보이스만문화와 문암리유적에서만 보이는 극히 지역성을 띤 석기이며, 두 지역간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18) 그림 출전 1~13 · 16~18 : Попов·Чикишева·Шпакова 1997, 14 · 19 : Востречов 1998, 15 : 데.엘.브로단스키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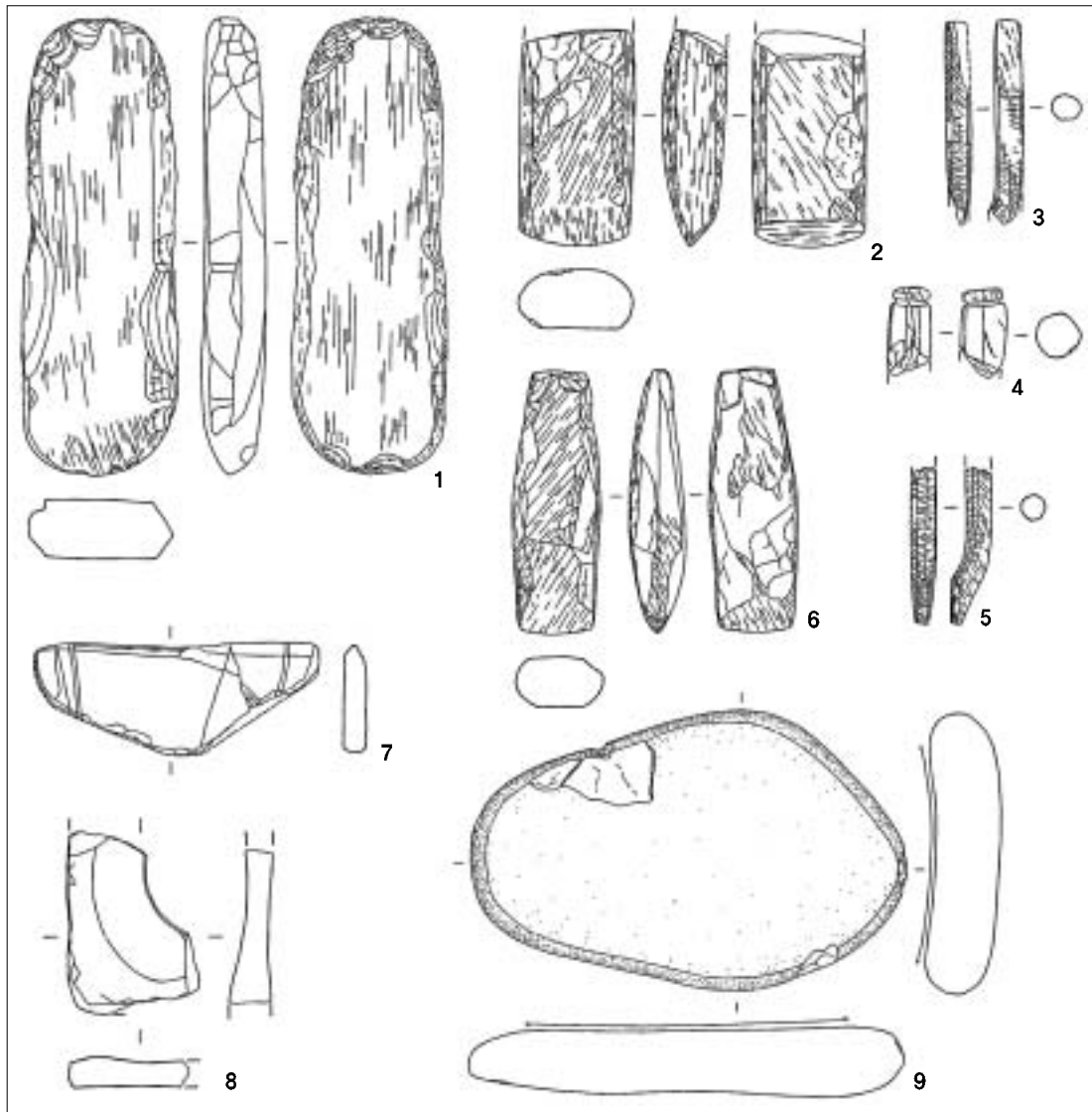


그림 5. 고성 문암리유적 1단계(Ⅸ·Ⅹ층)의 석기 조성(1/3)¹⁹⁾

그 외에도 고성 문암리유적의 석기조성에서 주목할 것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엿보인다는 점이다. 즉, Ⅸ·Ⅹ층의 무문양토기 조성에 공반하는 석기조성<그림 5>에는 보이스만문화의 특징적인 세장한 화살촉과 엔드스크레이퍼가 보이지 않는다. <그림 6>과 같이 Ⅶ층 이후가 되어, 보이스만문화 토기의 영향이 보이는 것과 연동하여 보이스만문화 계통의 석기들도 나타난 것일까. 자료수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수정될지 더 확고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문제다.

19) 그림출전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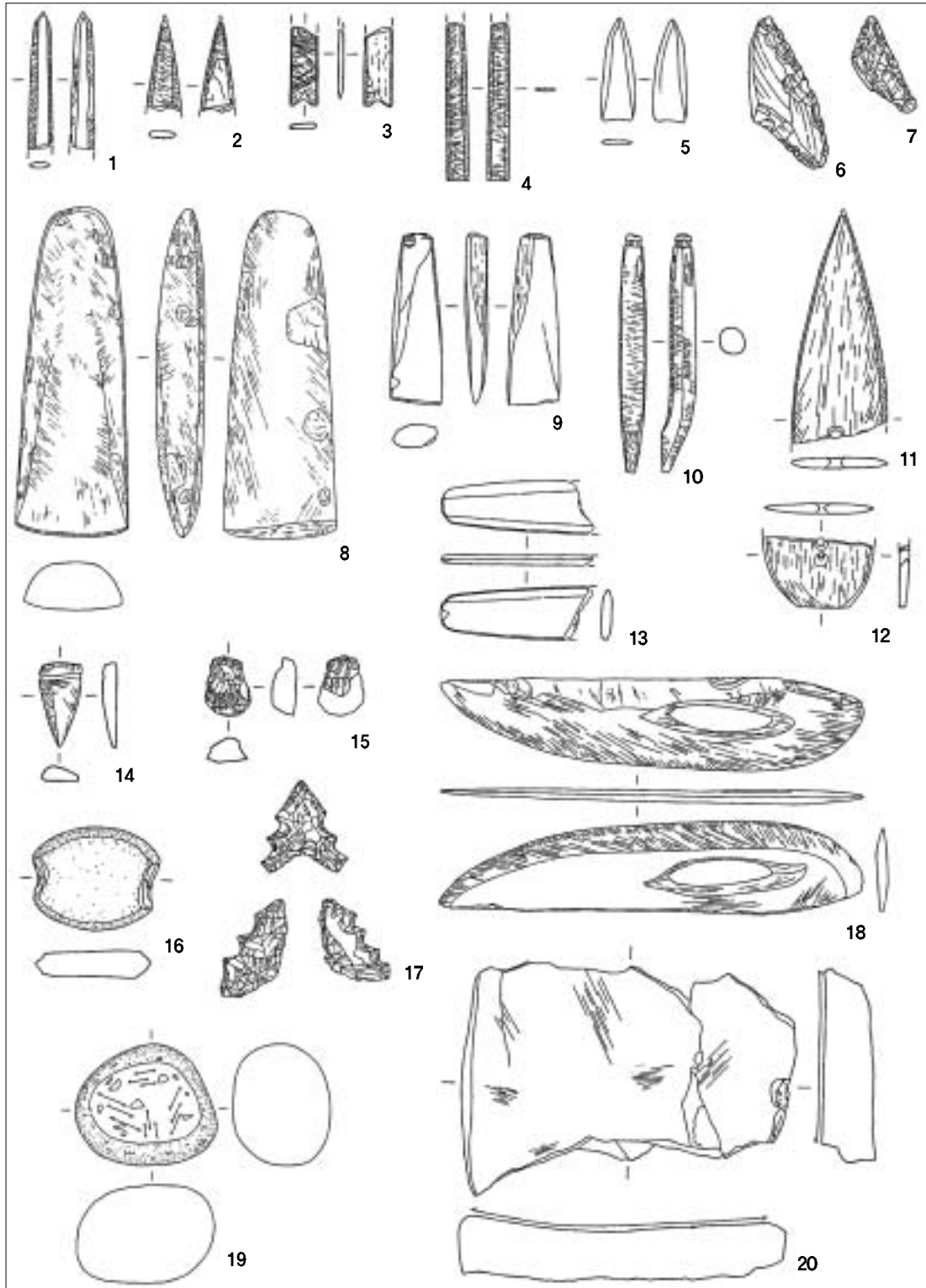


그림 6. 고성 문암리유적 2단계(VII~VI층)의 석기 조성(1/3²⁰)

20) 그림 출전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3. 결상이식(缺狀耳飾)

두만강 하류지역과 고성 문암리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된 장신구 기종으로 결상이식이 있다. 두만강 하류지역의 결상이식은 일제강점기에 석기시대 조사를 주로 담당했던 일본인 고고학자 중 한사람이었던 토리이 류조[鳥居龍藏]에 의해 채집된 적이 있으나, 몇몇 문헌(鳥居 1921, 1923)에서 술된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이후 1998년 러시아 연해주의 보이스만2유적에서 결상이식이 출토되었으며, 범위를 좀 더 넓혀 보면 연해주 중동부지역에 위치하는 루드나야문화의 초르타비 바로타 동굴유적에서도 1973년에 출토된 바 있다.

보이스만2유적의 결상이식<그림 7-26, 27>은 옅은 녹색의 경옥제로 보고되어 있다(Попов 2002). 이 중 <그림 7-26>의 결상이식은 제2묘군 4호묘의 인골 2구 중 16-20세 가량의 여성 인골 목뼈 근처에서 출토되었다(Попов 2002). 필자가 전시품을 본 바에 의하면, 두께가 약간 두터운 편으로 문암리 결상이식처럼 납작한 느낌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초르타비 바로타 동굴유적의 결상이식<그림 7-1>은 회백색의 석영(마노)제²¹⁾이며, 직경 3.9cm, 두께 1.9cm, 중앙공(中央孔)의 직경은 1.6cm, 결구(缺口)²²⁾의 폭은 2~3cm라고 한다(Андреева 1991). 이것은 동굴 내에서 검출된 주거지의 중앙 부분에서 석제·패제·골제의 다양한 장신구들과 같이 출토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문암리유적의 결상이식은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²³⁾ 이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것일까.



사진 2 중국의 결상이식 (좌 : 하모도(河姆渡)유적, 우 : 사해(査海)유적)²⁴⁾

21) 이 유물을 실견한 川崎는 연옥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확한 암석학적 감정을 희망한 바 있다(川崎 2004).

22) 귀볼에 삽입하기 위해 환(環)의 일부를 잘라 관통한 부분으로, 일본에서는 절목(切目)이라 부른다.

23) 소남산(小南山)과 초르타비 바로타유적의 예를 들며, 재질과 절대연대 측정 결과 등을 근거로 중국동북지방과 연해주 등지로부터 반입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4) 사진 출전 좌 : 敬和学園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2004, 『環日本海の玉文化の起源と展開』; 우 : 誠信院大學, 2005, 『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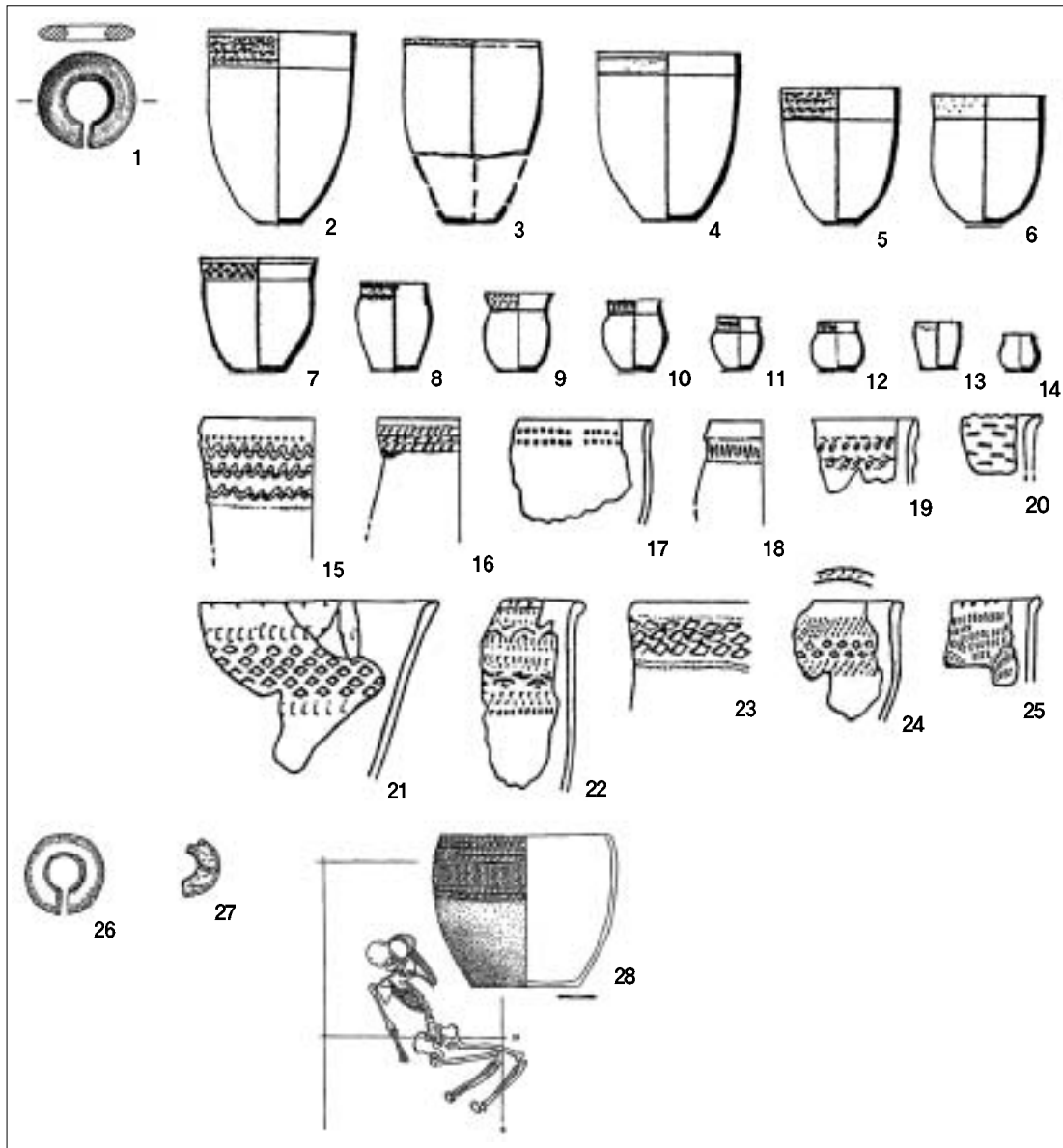


그림 7. 초르타빅 바로타유적과 보이스만2유적 출토 결상이식과 토기
(1, 26, 27 : 1/3, 15~25, 28 : 1/6, 나머지는 불명)²⁵⁾

1~20 : 초르타빅 바로타동굴 주거지, 21~25 : 초르타빅 바로타동굴 입구, 26~28 : 보이스만2

최근 동아시아의 결상이식과 관련해서는 제작기법에 대한 천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결구를 자르는 기법에 주목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鄧聰 2000; 鄧聰(谷内美江子譯) 2004; 川崎保

25) 그림 출처 1 : Андреева 1991, 2~14 : Жушиховская И.С., 2004,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древнего гончар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15~25 : クズネチヨフ 2002, 26·27 : Попов·Кононенко·Дорофеева 2002, 28 : Морева·Попов 2003

2006). 즉, 결구를 자르는 도구로 돌을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실을 사용하였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자른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의 결상이식 결구(사진 2)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잘린 부분의 형상이 ‘(’ 와 같이 호상(弧狀)을 이루며 잘린 면에도 호상의 찰흔이 남는다. 찰흔을 관찰하면 바깥 쪽에서 중앙공을 향해 잘라나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돌을 이용하여 자른 결구는 양쪽이 마주 보는 ‘><’ 모양을 띠고 잘린 면에는 양 측면에 따로따로 직선의 찰흔이 남는 특징이 있다²⁶⁾. 환(環)을 놓혀놓고 윗면과 아랫면에서 각각 잘라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구의 제작기법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중국 동북 및 장강(長江)유역에서는 실자르기 기법이 특색이라고 한다(鄧聰 2004). 초르타빅 바로타유적의 경우 사해(查海)유적 출토품과 같이 실로 잘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도면상에 나타나 있다. 초르타빅 바로타 출토품을 직접 실견한 카와사키 [川崎]도 결구부분이 좁은 점과, 같이 출토된 원반형 옥제품의 동심호상(同心弧狀) 찰흔을 근거로 실자르기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였다(川崎 2006). 그리고 필자도 전시품을 본 적이 있는 보이스만의 결상이식은 잘린 부분이 호상을 이루는 점에서 실로 자른 결구로 판단되었다.

반면, 문암리의 결상이식에서는 돌자르기의 특징이 확실하게 관찰되었다²⁷⁾. 2점 모두 결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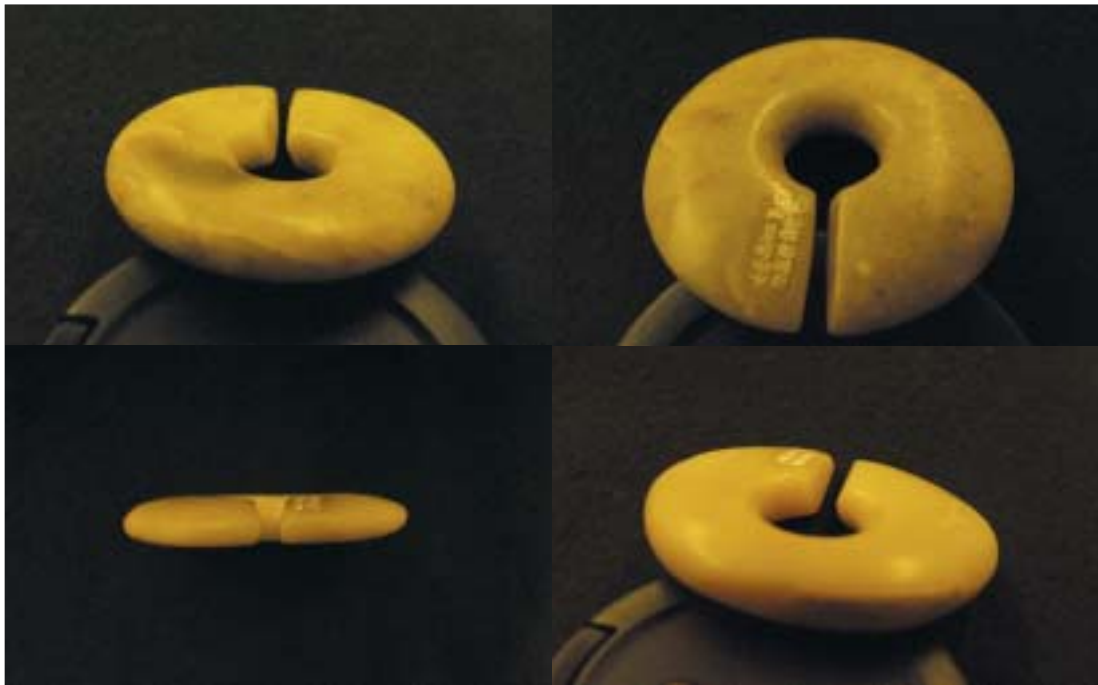


사진 3. 고성 문암리 출토 결상이식²⁸⁾

26) <그림 11-10, 11>의 부산 동삼동패총과 청도 사촌리 출토 결상이식의 결구부분의 찰흔과 같은 것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유물의 도면을 여러개 유통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기존 도면에 이 찰흔이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필자가 실측한 도면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27) 문암리 출토 결상이식의 결구 제작기법이 돌자르기임을 처음 제기한 것은 古澤義久(현 나가사키현교육위원회)이다.

28) 사진출전 : 필자촬영

‘><’ 모양을 띠고 있으며, 결국 양 측면에 직선상의 찰흔이 남아있었다(사진 3).

결구 제작기법의 차이는 문암리의 결상이식이 중국 동북지역이나 두만강 하류지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입된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암리의 결상이식은 어디서 제작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암리 결상이식은 한반도 내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내에서 제작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료입수, 제작기법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만족 시켜야 된다. 보고서에는 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경옥 산지가 알려진 곳이 없고 제품 자체도 삼국시대 이후가 되어야 나타난다(Lee In-Sook 1998)는 점에서 연옥일 가능성이 크다. 연옥은 춘천의 대규모 산지를 비롯, 한반도 내에 몇 군데의 산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춘천의 교동유적에서 천공(穿孔) 도구의 미완성 관옥(그림 11-1)이 출토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관옥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천공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의 부재로 인해 외부에서 가져오는 경우라면 당연히 난이도가 가장 높은 천공을 마친 완제품이 반입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춘천 교동의 미완성 관옥에 공반하는 토기가 중동부지역 압날문 평저토기에 속하며, 같은 토기 문화권의 문암리유적에서는 발달된 찰절기법을 추정할 수 있는 찰절도구(그림 6-13)와 찰절석기(그림 6-1~4·10·11·12·18)가 다량으로 나온 바 있다. 따라서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요건인 재료와 기술이 갖춰져 있었던 당시에, 문암리의 결상이식을 굳이 타지역으로부터의 반입했을 필요성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문암리유적의 결상이식을 재지에서 제작하였다는 판단이 한반도내에서 결상이식이 독자적으로 자생하였다고 결론지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결상이식이라는 기종에 대한 정보 자체가 한반도 이외의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에는 필자도 동의하며, 그 지역이 중국동북지역이나 연해주지역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런데, 결상이식이라는 기종을 공유하면서도 그 제작기법이라는 면에서는 양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결상이식을 포함하여 석부, 석촉, 결합식조침 축부 등의 제작에 내재해 있는 찰절기법(擦切技法)의 계보를 찾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찰절기법의 계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기고 싶다.

이상으로 문암리유적과 두만강 하류지역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 시점에서는 문암리유적에서만 두만강 하류지역의 영향을 찾을 수 있었다. 보이스만문화 토기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문양 요소(세밀한 다치구의 대상 문양대)가 중동부지역에 많이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중동부지역에 영향을 끼친 보이스만문화 요소들 사이의 시간적 관계에 대해서는, 02-3호 매장 유구에서 다치구계 압날문토기가 결상이식과 공반하는 것 외에는 층위적 근거를 마땅히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산리유적에는 다치구계 압날문토기도 2,3점에 불과하고 보이스만문화의 석기도 그다지 보이지 않지만, 문암리유적에는 다치구계 압날문토기가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보이스만문화의 석기도 이들 토기군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전개과정 중에서 두번째의 획기는 두만강 하류지역의 보이스만 문화와의 관련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IV. 남부지역과의 관계

전고를 통해서도 밝힌 바와 같이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가 일정 부분 병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문암리유적과 남부지역의 토기·토제품·석기·장신구 등을 비교해 나갈 것이다. 토기 외의 문화요소들도 그 병행관계를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 주목해 주었으면 좋겠다.

1. 토기와 토제품

남부지역과 문암리유적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토기의 기종 조성, 토기 자체, 문양이나 기형의 일부요소를 추출해 보았다.

먼저, 기종 조성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유적이 울산 세죽유적이다. 울산 세죽유적과 고성 문암리유적에서 특이한 굴곡형토기(屈曲形土器)와 직립구연(直立口緣)의 옹형토기<그림 8-1~7·8~10>가 공통적으로 출토되어 양 유적의 깊은 관련성을 증명해 준다는 점은 전고(金恩瑩2006a)에서 밝힌 바 있다. 울산 세죽에서는 그 외에도 오산리유적 V-①층의 토기 조성<그림 8-11~20>, 중동부지역 계통의 용기문토기 조성<그림 8-21~26>이 같이 출토되었다.

울산 세죽유적에서 나온 중동부지역 계통의 토기는 울산 세죽유적에서 모방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동부지역의 토기 그 자체라고 생각된다. 토기의 기종이 전체적으로 모방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뿐만 아니라, 이들 토기들은 중동부지역의 제작 기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림 8-18>과 같은 ㄱ상의 점토띠 접합흔, 일정한 폭을 가지는 기면 마연, 용기문 접합시 손으로 누른 단위가 그대로 남도록 붙이는 것이나 용대 위에 각목을 시문할 때 기면에까지 깊이 넣는 것 등, 길으로는 관찰되지 않는 제작 기법까지 발현되어 있는 것은 이들 토기의 제작자가 중동부지역인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울산지역과 고성·양양지역 사이에는 평저토기가 출토되지 않아 남부지역과 중동부지역의 경계가 그 공백지역 어딘가에 오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되어 왔다. 원래 울산지역은 울산 세죽보다 앞단계인 신암리나 우봉리유적에서는 남부지역 계통의 용기문토기가 점하고 있었다. 울산 세죽유적 단계에서 중동부지역인이 직접 만든 토기가 완전한 기종 조성을 보이며 상당량 출토되었다는 것은 중동부지역인의 이동이나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범위가 확장되어 남부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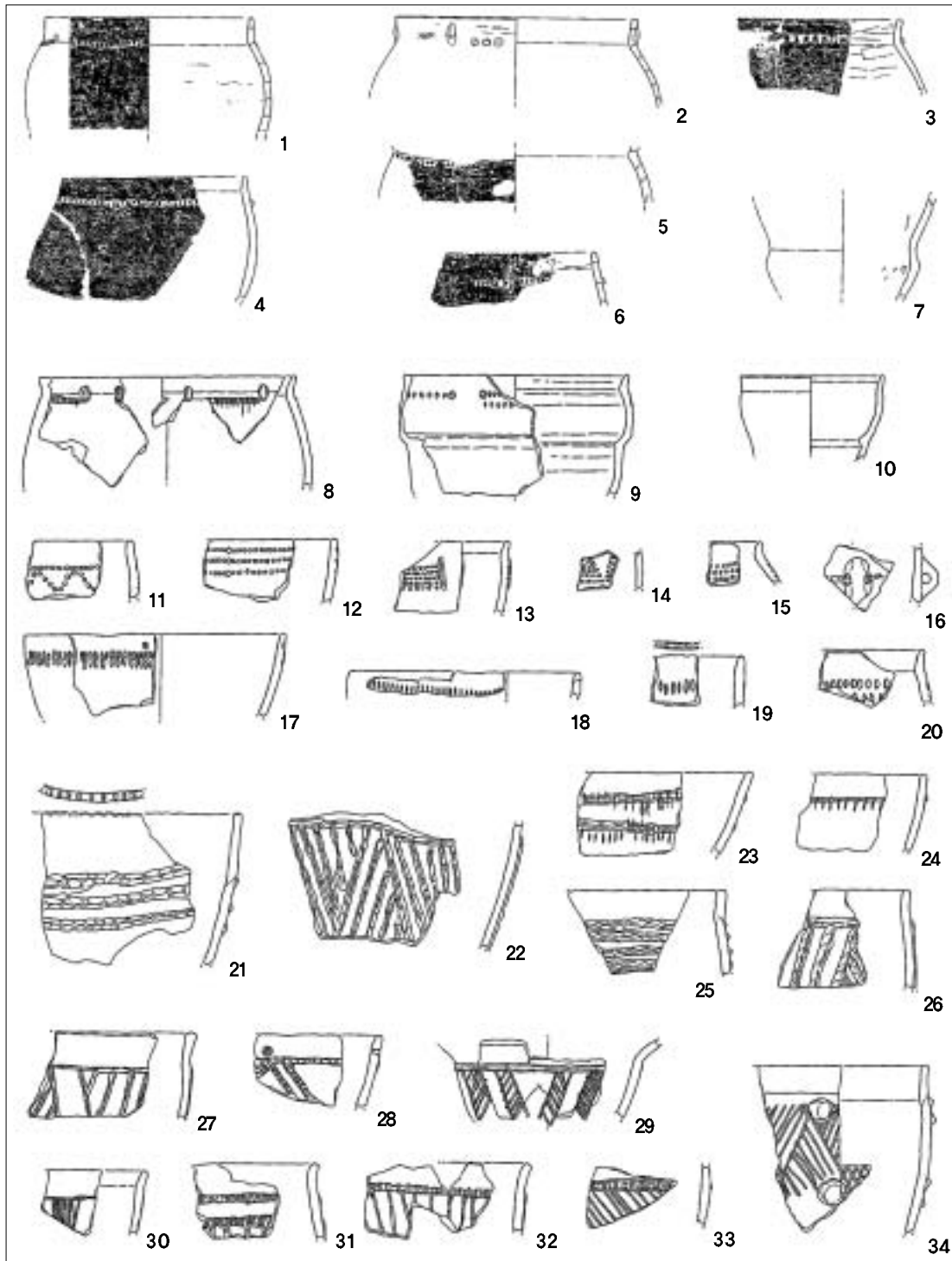


그림 8. 고성 문암리(1~7), 울산 세죽 출토 토기(1/6)²⁹⁾

29) 그림 출전 1~7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8~20 :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蔚山廣域市 2007

문양이나 기형의 일부 요소의 영향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와의 차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먼저 남부지역 재지의 용기문토기를 보면, 용기선문과 용기대문의 복합시문이 많고, 용기문의 문양 모티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침선문으로 대체한 것이 많다³⁰⁾. 그리고 두립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형의 특징은 평저 외에도 원저에 가까운 저부의 가장 밑부분을 안쪽으로 둥글게 파들어간 것이나 원저 등 다양한 저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金恩瑩 2006b).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는 압날문토기 뿐 아니라 용기문토기에 있어서도 남부지역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용기문 자체의 구성이 단순하여 용기선과 용기대문이 결합하는 것이 소수 존재할 뿐, 기본적으로는 침선문과 결합되지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용기선과 용기대의 제작 기법도 특징적이며 두립문토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형은 거의 대부분 평저다.

양 지역의 이러한 차이를 전제로 한 후 각 지역에서 상대지역의 문양이나 기형의 일부 요소를 찾아 보면,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에는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의 특징적 요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남부지역에서는 용기문토기에 점열문이나 중단선문 같은 압날문이 시문되거나 두립문, 구순각목 등의 문양요소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특히 중동부지역 압날문토기가 같이 출토되는 울산 세죽유적과 부산 동삼동유적에서 그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점을 들어, 필자는 그것이 중동부지역 압날문토기의 영향이며, 나아가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의 동시기성을 증명해 주는 근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金恩瑩 2006a). 그리고 이 지역에 평저토기의 경향이 강화되어 그 이서(以西)지역과의 기형의 차이가 심화되는 것도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영향을 크게 입은 울산 세죽유적에서는 $6480 \pm 120 \sim 6110 \pm 80$ BP년의 절대연대가 나와 있다(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세죽유적의 절대연대는 큰 폭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토기 형식상의 단시기성과 잘 연동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고성 문암리유적과의 교차편년으로 대비시켜 보면, 울산 세죽유적의 토기는 적어도 고성 문암리의 반죽관문 시문 토기들(VII층 이상에서 출토)보다는 늦은 것이므로, 문암리에서 나온 절대연대와 정합적(整合的)이다. 따라서 남부지역과의 비교에서도 문암리유적의 절대연대는 수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기 외에 고성 문암리유적과 남부지역의 관련성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원반형토제품<그림 9-1~4>이 있다. 직경 10cm 내외, 두께 1~2cm 정도의 무문양의 토제품으로 문암리 외에도 양양 오산리, 울산 세죽, 부산 범방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문암리유적은 VIII-2층, 오산리유적 것은 V-④층 출토품이고, 부산 범방유적에서는 용기문토기 출토층인 12층에서 나왔다. 모두

30)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에 침선문토기가 공반한다는 사실은 林尙澤(1993)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용기문의 문양 모티브 일부 또는 전체를 침선문으로 대체한 토기가 용기문토기의 이른 단계부터 공존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용기문토기의 존속기간에 대한 인식과는 별도로, 평가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안정적으로 평저토기 및 용기문토기와 공반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원반형토제품에 의해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와의 동시기성이 다시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문암리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같은 토기 문화권의 양양 오산리유적에서 출토된 사람모양·동물모양 토우는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에 공반하는 토우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부지역의 토우 중 시기가 명확한 것으로는 울산 세죽의 사람모양·동물모양 토우, 부산 동삼동의 곰모양 토우, 완도 여서도의 사람모양 토우를 들 수 있으며, 모두 용기문토기와 공반한다(그림 9-5~9).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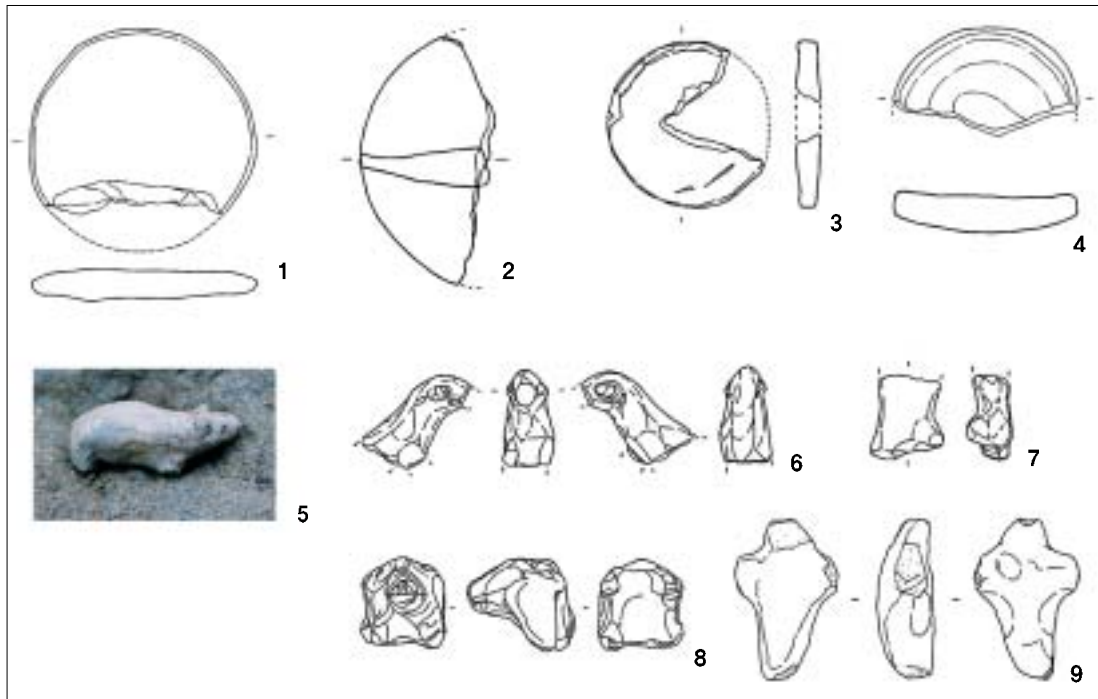


그림 9. 원반형토제품과 토우(1/3)³²⁾

1: 고성 문암리, 2·5: 양양 오산리, 3·6·7: 울산 세죽, 4: 부산 범방, 8: 부산 동삼동, 9: 완도 여서도

31) 다나카(田中, 2000)는 토우, 결합식조침, 석제장신구를 초기, 전기 시기의 수렵, 채집과 어로할 중심으로 한 이동성이 높은 생활방식에 기인하여 동북아시아적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한 유물로 인식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는, 중동부지역 평저토기를 매개로 하여 북방지역의 문물이 한반도 남부지역까지 전해지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석제장신구에 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합식조침(정확히 말하면 석제축부에 골제침부가 결합된 형태)의 경우는 중동부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의 고유한 어로구로써 육지로 연결된 북쪽지역에서도 나오는 예가 없으며, 일본열도에도 전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규슈지역에서의 결합식조침 석제축부의 유일한 출토 예인 오오야(大矢)유적의 자료는 필자가 실견한 바, 형태적 유사성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구주지역 조몽후기초두에 해당하는 시기상의 큰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오산리형 결합식조침의 구주지역으로의 반입을 상정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또한 토우의 경우도 보이스만문화나 루드나야문화 시기의 토우가 아직 발견된 예가 없으므로, 북방지역에서 그 계보를 찾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32) 그림 출전 1: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2: 서울大學校博物館 1985, 3·6·7: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發 · 蔚山廣域市 2007, 4: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5: 보도자료, 8: 부산박물관 2007, 9: 목포대학교박물관 2007

2. 석기

문암리유적과 남부지역 용기문토기가 공유하는 석기는, 결합식조침<그림 10-1~5>, 타제석촉<그림 10-9·10>, 창형 마제침두기<그림 10-7·8·11>³³⁾, 찰절구<그림 10-12>, 추형석기<그림 10-6>, 갈돌<그림 10-19>, 갈판<그림 10-18> 등이다.

필자는 석제촉부(石製軸部)³⁴⁾와 골제침부(骨製針部)로 구성되는 결합식조침(結合式鈞針)은 한 반도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에만 보이는 매우 특징적인 어로구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와 관련된 사항을 몇가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울산 세죽에서는 소위 ‘범방형조침(하인수 1996)’ 과 ‘오산리형조침’ 이 같은 층위에서 출토되었다. ‘오산리형조침’ 이 ‘오산리식토기’ 와 공반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범방형조침’ 의 유적에서의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동삼동, 범방에서 모두 용기문토기와 공반하고 있다. 울산 세죽유적 III-2b층에서는 ‘범방형조침’ 이 촉과 침이 결합되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토되었다. 세죽 유적에서는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와 중동부지역 계통의 토기가 모든 층위에서 골고루 섞여 나왔다. 기존의 편년과 같이 용기문토기→‘오산리식토기’ 의 순서라면 더 늦은 시기인 ‘오산리형조침’ 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토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출토된 것은 ‘범방형조침’ 이었다. 결국, 범방형조침의 출토상황은 세죽유적의 층위의 안정성뿐 아니라,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의 동시기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합식조침의 석제촉부는 남해안 전역에서 출토되는데, 그 중 공반토기가 확실한 것을 열거해 보면, 울산 세죽·우봉리·신암리, 부산 동삼동 8·9층, 2004구상(溝狀)유구, 범방 13층·7층, 통영 연대도P~U피트 II층, 완도 여서도³⁵⁾가 있고 모두 용기문토기와 공반하고 있다. 석제촉부가 영선동문화에까지 존속하는지를 알려면, 용기문토기와 공존하지 않는 영선동식토기 출토 유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선동식토기 단순 유적인 경주 황성동·부산 영선동·거제 산달도·제주 온평리·함안 도항리·부안 계화도, 영선동식토기 단순층위인 하동 목도 3층·통영 옥지도 H트렌치, 영선동식토기와 수가리 1식 이후의 토기가 출토되는 김해 수가리·김천 송죽리 등에서는 석제촉부가 출토된 예가 없다. 다만, 군산 가도와 노래섬에서 영선동식토기와 함께 결합식

33) <그림 10-11>과 같이 신부에 구멍을 뚫은 것도 양 지역에 공통된 특징적인 속성이다.

34) 이 시기의 결합식조침 촉부가 석제로만 된 것은 아니다. 울산 세죽유적과 부산 동삼동 9층에서는 석제촉부와 똑같은 형태의 골제촉부가 출토된 바 있어, 골제촉부가 조성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연대도에서 출토된 골제촉부도 형태가 석제촉부와 같으므로 이에 속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중심은 역시 석제촉부였다고 생각된다.

35) 필자는 완도 여서도의 토기 조성을 연대도 부딪군의 토기 조성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용기문토기의 늦은 단계로 위치했다(金恩燾 2006b). 완도 여서도의 결합식조침 촉부에 석제와 골제촉부가 공존하는 사실은 여서도의 시간적 위치와 서해안에 가까운 공간적 위치가 결부되어 석제촉부+골제침부의 결합식조침에서 노래섬형 결합식조침(골제촉부+아제침부)으로의 변천과정을 잘 반영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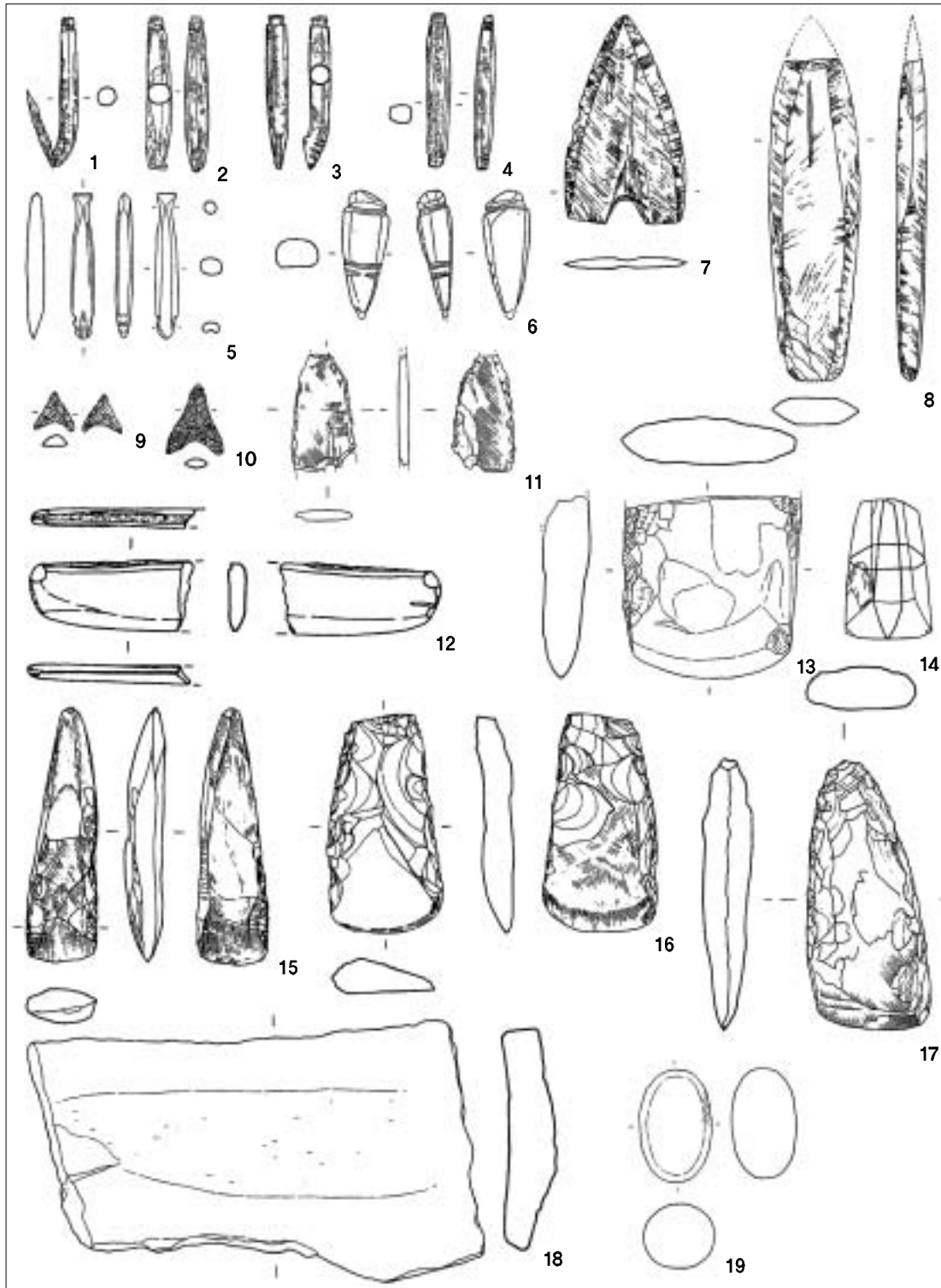


그림 10. 한반도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에 공반하는 석기조성(1/3)³⁶⁾

36) 그림 출전 1·7·8 :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蔚山廣域市 2007, 2~4·10·13·18·19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5 : 國立光州博物館 1994, 6 : 국립대구박물관, 2005, 『사람과 돌』, 9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6, 11·17 : 國立普州博物館·統營郡 1989, 12 : 東亞大學校博物館 1997, 14 : 國立中央博物館 1988, 15·16 : 國立普州博物館 1999

조침이 출토되었으나, 석제촉부는 나오지 않고 골제촉부와 아제(牙製) 또는 골제침부의 세트(套)로 구성되어 있다³⁷⁾. 따라서 필자는 석제촉부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 결합식조침은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에 수반한 어로구로서, 신석기시대 초기에 양 지역의 공통된 어로문화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해석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점은 중동부지역의 촉부와 남부지역의 촉부를 비교하였을 때, 한반도 신석기시대 결합식조침의 시원(始原)은 오산리형조침³⁸⁾이며 남부지역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생겨났으나 남부지역의 변이형태가 다시 중동부지역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동부지역에서는 고성 문암리유적과 양양 오산리Ⅱ유적의 최하층에서부터 결합식조침 촉부가 출토되고 있다. 양양 오산리Ⅱ유적의 결합식조침 촉부는 그 윗층의 것과 비교해서 소형인 점, 그리고 신부(身部)가 곡선을 이루는 점 등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침부와 연결되는 결합부의 형태는 똑같다. 결합식조침 촉부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결합부의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중동부지역에서는 크기의 대소는 나타나지만 결합부의 형태는 평저토기 최후의 시기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 보수성이 엿보인다.

반면, 남부지역의 결합식조침 촉부 중 가장 이른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가능성으로써 여천 안도패총 출토 결합식조침이 최하층의 토기와 공반하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중동부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것이 남부지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필자가 용기문토기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조성이 일괄 출토된 범방유적의 구(溝)유구에서 ‘오산리형’과 ‘범방형’이 같이 출토된 점으로 보아 적어도 용기문토기 시기에 들어와서는 남부지역에 ‘오산리형조침’ 외에도 ‘범방형조침’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용기문토기의 늦은 단계가 되면 촉부에 홈을 파서 침을 끼우는 ‘대경도형 조침<그림 10-5>’ 등 다양한 형태도 나타난다.

기존의 편년(용기문토기→‘오산리식토기’)에 따르면, 결합식조침의 변화는 남부지역의 다양한 촉부 중에서 한가지 형태만이 중동부지역에 전해지고 남부지역에서는 자취를 감춘 시기에도 중동부지역에서만은 왕성하게 제작되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양상이 되고 만다.

그러나 실제 양 지역에서의 출토 양상과 교차편년을 통해 보면, ‘오산리형조침’에서 시작된 결합식조침은 중동부지역에서 형태상의 변화가 거의 없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동안, 남부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그것이 골제촉부+아제 침부로 바뀌어 영선동문화로 계승된 후, 큐슈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7) 바로 이 ‘노래선형 결합식조침’이, 소바타식[罽如式]토기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북큐슈형[西北九州型] 결합식조침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촉부와 침부의 재질구성이나, 니시카라츠식[西麻津式]토기 또는 소바타식토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영선동식토기와 구획반복문토기(安承模 2002)가 노래선과 가도에서 출토된 전과도 잘 부합한다.

38) 오산리형조침이 시원형태라고 해서 기원지가 중동부지역이라는 것은 아니다.

3. 석제 장신구

문암리유적과 남부지역에는 공통된 장신구로서 결상이식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반도 출토 결상이식과 그와 관련있는 석제 장신구를 모아서 약간의 검토를 진행하고, 한반도의 결상이식이 죠몽 결상이식의 반입품이라는 견해(中山淸隆 2004; 川崎保 2006)에 대해서도 필자의 의견을 약간 서술하겠다.

결상이식은 고성 문암리, 청도 사촌리, 부산 동삼동, 사천 선진리, 여천 안도 등에서 현재까지 총 6점이 출토되었다(그림 11-8~13). 이 중에서 출토양상을 통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고성 문암리와 사천 선진리, 여천 안도 출토품이며, 고성 문암리는 <그림 3-4>의 다치구계 압날문 토기와, 사천 선진리³⁹⁾는 용기문토기와 공반하고, 여천 안도는 최하층에서 출토되었다. 여천 안도의 최하층 출토품에는 압날 또는 압인문의 옹형토기와 주철의 평저토기가 포함되어 있고, 큐슈 지역에서 쿠하마식(苦浜式)토기로 불리는 죠몽토기가 공반하고 있다. 죠몽토기를 제외한 안도의 최하층 토기는 용기문토기보다 이른 시기의 한반도 재지계 토기 조성일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위의 결상이식을 모두 실견할 수 있었는데, 재질이나 형태 등은 각각 차이가 나지만 결구의 제작기법이 돌자르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결상이식과 함께 동아시아 신석기시대 전반기의 옥제품 세트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석제 장신구로는, 춘천 교동의 관옥(管玉)<그림 11-1>, 연대도의 관옥<그림 11-2>과 소옥(小玉), 울진 후포리의 소옥과 유선형 수식(垂飾)<그림 11-3~6>, 부산 범방의 장방형 수식<그림 11-7>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춘천 교동의 관옥, 연대도의 관옥, 범방의 수식이다. 연대도의 연옥제 관옥은 II층에 해당되는 14호 인골의 왼쪽 팔부분에서 출토되었다. 14호 무덤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로 판정되어 있는 7호와 11호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가 용기문토기므로, 관옥을 용기문토기 시기의 것으로 판단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범방패총의 수식도 연옥제이며 13층과 12층 사이에서 검출된 인골의 목뼈 근처에서 나왔다. 범방패총의 13층과 12층은 모두 용기문토기만이 출토되는 층이므로 수식의 시기 확정이 가능하다. 춘천 교동유적 출토 미제품 관옥<그림 11-1>은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에 속하는 토기와 함께 출토되었으며, 재질은 춘천산 연옥으로 추정된다.

울진 후포리에서는 무덤의 부장품으로 다량의 전면마제석부와 함께 소옥<그림 11-3, 4>과 유선형 수식<그림 11-5, 6>이 각각 2점씩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토기가 한점도 출토되지 않은 관계로 석부로서 시기를 판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후포리와 유사한 장대형(長大型)석부가 출

39) 결상이식이 나온 하층에서는 용기문토기와 영선동식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필자가 사천 선진리유적의 하층 출토품을 실견한 소견으로는, 용기문토기는 토기편이 매우 크고 완형에 가까이 복원되는 개체가 있었던 반면, 영선동식 토기는 토기편 자체가 작은 것밖에 없었으므로, 이 하층의 중심은 용기문토기며 여기에 부분적으로 영선동식토기가 혼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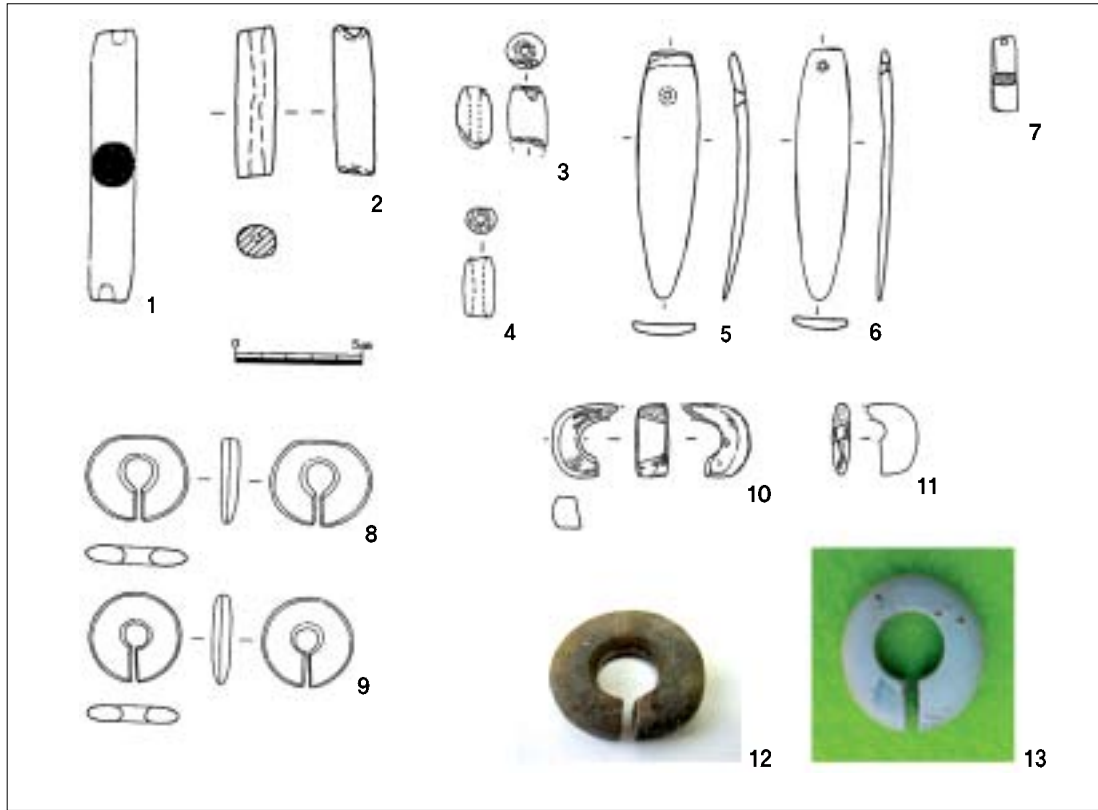


그림 11. 한반도 출토 석제 장신구(12·13은 불명 나머지는 1/3)⁴⁰⁾

1: 춘천 교동, 2: 통영 연대도, 3~6: 울진 후포리, 7: 부산 범방, 8·9: 고성 문암리, 10: 부산 동삼동, 11: 청도 사촌리, 12: 여천 안도, 13: 사천 선진리

토된 곳은 춘천 교동을 들 수 있으며, 후포리의 중형과 소형 석부는 문암리유적의 석부와 조성, 형태 면에서 유사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찰절기법과 친공기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문암리유적과의 관련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울진 후포리유적은 고성문암리, 춘천 교동유적과 함께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에 속하는 유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석질 불명의 장신구들도 그 일부분을 이루는 것이라 추정된다.

이상으로 한반도에서 나온 결상이식을 포함한 석제 장신구에 대하여 필자가 다시 편년을 행한 결과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중동부 평저토기와 남부지역 용기문토기 시기에 해당되어 시기적으로 매우 한정된 기간동안 제작·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⁴¹⁾, 돌자르기라는 결구

40) 그림 출전1: 金元龍 1963, 2: 國立普州博物館·統營郡 1989, 3~6: 國立慶州博物館 1991, 7: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8·9: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10·11: 필자 실측, 12: 國立光州博物館 2007, 13: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41) 청도 사촌리유적에서 나온 유일한 신석기시대 토기인 지자문토기(之字文土器)는 남부지역 중기의 수거리1식토기에 공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결상이식 시기확정의 근거로는 될 수 없다. 동삼동에서 출토된 결상이식도 4층에서 나왔으나 4층 자체에 적어도 3시기 이상의 토기가 섞여 있어 시기 판정이 어렵다. 만일, 영선동문화 시기의 결상이식이 출토되어 사촌리와 동삼동의 것과 연결된다면, 비로소 한반도 내에서의 결상이식의 존속기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작기법상의 제일성(齊一性)을 엿볼 수 있었다. 한반도 남부지역 조기를 대표하는 용기문토기는 규슈지역 죠평 전기초로 편년되는 토도로끼식(土土式)토기와 병행한다고 하므로, 한반도의 결상이식을 포함한 석제 장신구는 적어도 죠평 전기초까지 올라가며 안도패총의 출토품은 죠평 조기말 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본열도 죠평문화의 결상이식 편년이 공반하는 죠평토기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의 결상이식도 공반하는 토기에 의해 편년되어야 하는 것이지, 죠평문화의 결상이식 형태에 비추어 편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한반도의 결상이식이 규슈지역의 결상이식과 거의 비슷한 발생시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 이상, 죠평문화로부터 한반도로 전해졌을 가능성은 반대로 적어질 것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중동부지역으로부터 전해진 찰절구와 찰절석기들이 존재하고 있어 충분히 자체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에 속하는 결상이식의 재질이 중동부지역과 달리 옥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서 입수가 가능한 석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데, 규슈지역의 이른 시기 결상이식도 마찬가지여서(大坪志子 2004) 양지역간의 관련성을 엿보게 해준다.

한반도 결상이식을 포함한 석제 장신구에 대해서는 제작기법과 형태, 재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지금까지의 검토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내에서의 자체 제작 가능성과 극동평저토기(大貫靜夫 1998)와 깊은 관련을 가졌던 중동부지역 평저토기,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와 공반하여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결상이식도 이제 공간 분포와 시간적 위치를 어느 정도 알게 된 만큼 금후 동아시아 차원의 결상이식 연구의 일환으로써 다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상으로 고성 문암리유적을 중심으로 한 중동부지역과 남부지역과의 비교 검토를 마치면서 알게 된 것을 정리하면, 중동부지역과 남부지역 사이에는 토기를 비롯한 광범위한 물질문화 요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양 지역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었으나, 필자가 당초 생각해 왔던 상호적인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결론이 나왔음을 특기해 두고 싶다.

토기에 있어서 남부지역 용기문토기에는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영향이 뚜렷이 보이는 반면, 중동부지역의 평저토기에는 남부지역의 용기문토기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확실하게 중동부지역이 그 분포의 중심지라고 생각되는 전면마제석부, 추형석기, 찰절구 등은 남부지역 중에서도 동해안 쪽에 치우친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반면, 남부지역이 그 분포의 중심이라 생각되는 인부마연석부나 결합식조침 축부의 다양한 변이들은 중동부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로 평저토기 시기의 문화요소의 움직임이 일정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인지, 중동부지역 평저토기의 분포가 현재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남쪽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고성·양양 지역까지는 남부지역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인지, 주목해 볼 과제이다.

V. 맺음말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에 한반도 중동부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던 평저토기는, 압날문토기와 용기문토기라는 서로 다른 계통의 토기가 공존 내지 선후하면서 독특한 재지적 문화를 전개시켜 갔다. 평저토기 자체의 변천과정과 타지역과의 병행관계 등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연속적 발전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토기군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기원과 변천과정은 주목을 끌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만강 하류지역 그리고 남부지역과의 비교 검토에서 얻은 성과는, 토기 뿐만 아니라 석기, 토제품, 장신구 등 다양한 물질문화면에서 양지역과의 깊은 관련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일정 시기의 변천의 원인도 어렴풋이나마 구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동부지역 평저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관련된 지역의 실체를 알게 됨으로써, 그 기원에 관한 연구도 어느 지역을 주목해야 될지 유추가 가능하게 되었다.

육지로 이어진 인접지역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양상이 각기 달랐음도 알 수 있었다. 중동부지역과 두만강 하류지역간의 영향관계보다 남부지역과 중동부지역간의 영향이 보다 광범위한 기층에, 그리고 제작기법과 같이 공유의 차원이 보다 강한 부분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또한, 남부지역에는 일시적으로 중동부지역 사람의 이동 내지는 확산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이 기존의 생각을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다루어 지지 않았던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유물의 검토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한국어>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사천 선진리성 주차장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 慶星大學校博物館, 2006, 『釜山東三洞遺蹟』慶星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 第13輯
- 高東淳, 2007, 「襄陽 鰲山里Ⅱ遺蹟 道路擴張區域 發掘成果」 『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와 集落』 第7回
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發表資料集, pp.166~174.
- 國立慶州博物館, 1991, 『蔚珍 厚浦里遺蹟』
- 國立光州博物館, 1994, 『突山 世救地 遺蹟』
- 國立光州博物館, 2007, 「여천 안도패총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4, 『高城 文岩里 遺蹟』
- 國立中央博物館, 1988, 『新岩里Ⅰ』
- 國立晉州博物館·統營郡, 1989, 『煙臺島』
- 國立晉州博物館, 1999, 『牧島貝塚』
-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 金元龍, 1963, 「春川校洞穴居遺蹟과 遺物」 『歷史學報』 第20輯
- 金恩瑩, 2006a, 「韓半島 中東部地域 新石器時代 平底土器의 時空의 位置에 대하여」 『石軒鄭登元
教授停年退任記念論叢』, pp.37~72.
- 데.엘.브로단스끼(鄭培譯), 1996, 『沿海州의 考古學』
-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2, 『圖錄 蔚山 黃城洞 細竹』
- 東國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蔚山廣域市, 2007, 『蔚山細竹遺蹟Ⅰ』
- 東亞大學校博物館, 1997, 『蔚山 牛峰里』
- 목포대학교 박물관, 2007, 『완도 여서도 패총』
- 부산박물관, 2007, 『東三洞貝塚 淨化地域 發掘調査報告書』
-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93, 『凡方貝塚Ⅰ』
- 釜山廣域市立博物館, 1996, 『凡方貝塚Ⅱ』
- 서울大學校博物館, 1984, 『鰲山里遺蹟』
- 서울大學校博物館, 1985, 『鰲山里遺蹟Ⅱ』
- 서울大學校博物館, 1988, 『鰲山里遺蹟Ⅲ』

- 安承模, 2002, 「금탄리 I 식토기의 재검토」 『韓國新石器研究』 4
- 林尙澤, 1993, 「韓半島 隆起文土器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考古美術史學科文學碩士學位論文
- 田中聰一, 2000, 「韓國 中·南部地方 新石器時代 土器文化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史學科文學博士學位論文
- 하인수, 1996, 「V. 考察 2. 結合式釣針」 『凡方貝塚Ⅱ』, 釜山廣域市立博物館, pp.82~95.

<중국어>

- 鄧聰, 2000, 「東亞玦飾四題」 『文物』 2000-2

<일본어>

- 今村啓爾, 2005, 「4. 土器 a年代・型式学」 『日本の考古学』 上
- 金恩瑩, 2006b, 「韓半島東・南部地域新石器時代早・前期土器研究」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基礎文化研究専攻考古学専門分野修士學位論文
- 大貫専夫, 1998, 「東北アジアの考古学」
- 大貫専夫, 2003, 「日本と大陸の交流」 『東アジアと日本の考古学Ⅲ 交流と交易』, 後藤直・茂木雅博編, pp.3~28.
- 大坪志子, 2004, 「九州地方の玉文化」 『季刊考古学』 89号, pp.59~62.
- 鄧聡(谷内美江子訳), 2004, 「東アジアの玦飾の起源と拡散」 『環日本海の玉文化の始源と展開』, 敬和学園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pp.19~34.
- 藤田富士夫, 2004, 「環日本海の玦飾の始源に関する基礎的研究」 『環日本海の玉文化の始源と展開』, 敬和学園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pp.1~11.
- 藤田富士夫, 2004, 「大陸渡来説を考える」 『季刊考古学』 第89号, pp.72~75.
- 牟永抗(谷内美江子訳), 2004, 「長江の中・下流域における有史以前の玉玦」 『環日本海の玉文化の始源と展開』, 敬和学園大学人文社会科学研究所, pp.57~63.
- 伊藤慎二, 2005, 「第Ⅵ章 総括 (1) ロシア沿海地方の新石器時代土器編年とウスチノフカ8遺跡の位置」 『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Ⅱ』, 国学院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2004年度考古学調査研究報告, pp.100~114.
- 伊藤慎二, 2006, 「Ⅵ. ロシア極東の新石器文化と北海道」 『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 国学院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2005年度考古学調査研究報告, pp.59~90.
- 鳥居龍藏, 1921, 「朝鮮咸境道と沿海州の先史時代」 『東亜の光』 第16巻第5号, pp.18~26.
- 鳥居龍藏, 1923, 「梅原氏の鳥取県報告を読みて」 『人類学雑誌』 第38巻第2号, pp.72~80.
- 中山清隆, 2003, 「韓国の先史玉器・攻玉遺跡の新資料」 『新世紀の考古学 大塚初重先生喜寿記念

論文集】

- 中山清隆, 2004, 「朝鮮半島出土の玦状耳飾について」『玉文化』創刊号, 日本玉文化研究会
- 川崎保, 1998, 「玦状耳飾と管玉の出現-縄文時代早期末・前期初頭の石製装身具セットの意義-」
『考古学雑誌』83-3, pp.241~269.
- 川崎保, 2003, 「チョールタヴィ・ヴァロータ洞穴の土器, 装身具および骨角器についての考察」
『立命館大学考古学論集』Ⅲ
- 川崎保, 2004, 「極東の玉文化」『季刊考古学』89号, p.88.
- 川崎保, 2006, 「中国東北・沿海州から見た縄文玉製品」『東アジアにおける新石器文化と日本Ⅲ』, 国学院大学21世紀COEプログラム2005年度考古学調査研究報告, pp.95~104.
- クズネチヨフ アナトリー・ミハイロヴィッチ(大貫静夫訳), 2002, 「チョールタヴィ・ヴァロータ洞窟遺跡と沿海州新石器時代における諸問題」『博望』第3号, 東北アジア古文化研究所, pp.21~37.

<러시아어>

- Андреева Ж.В., 1991, *Неолит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ревнее поселение в пещере Чертовы Ворота*, Москва
- Востречоф Ю.Е., 1998, *Первые рыбаков в заливе Петра Великого: Природа и древний человек в бухте Бой смана*, Владивосток
- Морева.О.Л., 2003, 'Относительная Периодизация Керам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Бой сманской Археолог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Пвмятника Бойсмана-2', А.П. Деревянко отв. ред.,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и Палеоэкологии Северной,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овосибирск, pp.172~175.
- Морева.О.Л. · Попов А.Н., 2003, 'Керамика как обрядовый атрибут Бой сманской культуры', *Древности Приморья и Приамуря в контексте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рхеологии*, Владивосток, pp.33~56.
- Попов А.Н., 2002, 'Погребальные комплексы из неолитической раковинной кучи Бойсмана-2 в Приморье',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ладивосток, pp.102~107.
- Попов А.Н. · Кононенко Н.А. · Дорофеева Н.А., 2002,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каменного инвентаря Бой сманской культуры(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аскопок памятника Бой смана-2 1998 г.)', *Археология и культурная антроп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ладивосток, pp.82~87.

Попов А.Н. · Чижишева Т.А. · Шпакова Е.Г., 1997, *Бойсманска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многослойного Бойсмана-2)*, Новосибирск

<영어>

Lee In-Sook, 1998, 「Ancient Jade Decorative Object of Korea」 『東亞玉器』 Vol. II, 中國考古藝術研究中心, pp.350~358.

Попов А.И. · Кононенко Н.А., 1995, 「Lithic Inventory of the Bottom Layer of Boisman II」 『韓國上古史學報』 第18號

Zhushchikhovskaya I.S., 2006, 'Chapter 6. Neolithic of Primorie', *Archaeology of the Russian Far East: Essays in Stone Age Prehistory*, BAR International Series 1540, pp.101~122.

영문초록

**A study on the flat-bottom pottery culture in the early Neolithic Age
focusing on Goseong Munam-ri site**

Kim Eun-young

(Field of Archaeology

Graduate School of Humanities and Sociology

The University of Tokyo)

Owing to the excavation of Goseong Munam-ri site, there has been much advance in study of chronology of the early Neolithic Age flat-bottom potteries distributed in the mid-east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Relics such as stone tools, clay products, ornaments as well as potteries from Goseong Munam-ri site reflect cultural relation with Boisman culture in Duman river basin area and with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Common features can be found in some potteries, arrowheads, scrapers, and sinkers from Boisman culture and Goseong Munam-ri site. There are much more common features in pottery and earring-making techniques observed in Goseong Munam-ri site and the southern part of the peninsular. Thus it may be possible to analogize migration or spread of people from the mid-eastern part to the sou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r.

Keywords : flat-bottom pottery of the Mid-East part of Korean Peninsular, Boisman culture, applied pottery of the South part of Korean Peninsular, assemblage, cultural relation